

제3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04.10)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붙임. 질문지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Ⅰ. 조사의 설계	3
Ⅱ. 주요 조사 항목	4
Ⅲ. 가중값 배율	6
Ⅳ. 표본의 특성	7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Ⅰ.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1
Ⅱ. 조사 결과 세부 요약	22

붙임. 질문지

PART 1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639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표본 추출

▶ 집계구를 활용한 층화추출
- 1차 : 17개 광역시도, 2차 : 동부·읍면부, 3차 : 아파트·일반주택

조사 기간

▶ 2024년 4월 11일(목) ~ 5월 1일(수) (총 21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4년 3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II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현황 / 투표하지 않은 이유
- ▶ 투표 참여 방법
- ▶ 사전투표 이유 / 사전투표 없을 경우 선거일 투표 가능 여부
- ▶ 만약 사전투표 아닌 선거일 투표한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 선택 변화
- ▶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점(사전투표자/선거일 투표자)
- ▶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 정보 충분성
- ▶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 ▶ 선거벽보·선거공보 접촉 여부 및 도움 정도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전체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선거 공명성 평가 및 이유
- ▶ 답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인지 여부
- ▶ 답페이크 선거영상 접촉 경험
- ▶ 답페이크 선거영상 영향 여부

사전투표제도

- ▶ 사전투표제 인지 여부
- ▶ 사전투표제 투표참여 도움 정도
- ▶ 선관위의 사전투표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대책 시행 인지 여부
- ▶ 선관위의 사전투표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대책 효과성
- ▶ 사전투표 주장별 동의 정도
- ▶ 향후 사전투표제 운영 방향

기타 선거제도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 여부 / 의석 배분방식 인지 여부
-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인지 여부 / 고용주의 투표시간 보장 여부
-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및 금품·음식물 받은 자 과태료제도 인지 여부
- ▶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접촉 여부 및 도움 정도
- ▶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홍보활동 효과
- ▶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호감도
-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체		1,639	100.0	1,639	100.0	1.00
성별	남자	809	49.4	812	49.5	1.00
	여자	830	50.6	827	50.5	1.00
연령별	18~29세	251	15.3	261	15.9	1.04
	30대	249	15.2	243	14.8	0.98
	40대	296	18.1	291	17.8	0.98
	50대	321	19.6	322	19.6	1.00
	60대	281	17.1	285	17.4	1.01
	70세 이상	241	14.7	237	14.5	0.98
권역별	서울	336	20.5	306	18.7	0.91
	인천/경기	525	32.0	525	32.0	1.00
	대전/세종/충청	178	10.9	176	10.7	0.99
	광주/전라	147	9.0	159	9.7	1.08
	대구/경북	151	9.2	158	9.7	1.05
	부산/울산/경남	231	14.1	244	14.9	1.06
	강원/제주	71	4.3	70	4.3	0.99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성/연령/지역비를 따름

IV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1,639	100.0
성별	남자	812	49.5
	여자	827	50.5
연령별	18~29세	261	15.9
	30대	243	14.8
	40대	291	17.8
	50대	322	19.6
	60대	285	17.4
	70세 이상	237	14.5
권역별	서울	306	18.7
	인천/경기	525	32.0
	대전/세종/충청	176	10.7
	광주/전라	159	9.7
	대구/경북	158	9.7
	부산/울산/경남	244	14.9
	강원/제주	70	4.3
직업별	경영/관리/전문 사무직	410	25.0
	서비스/판매/영업직/ 생산/노무직	401	24.5
	자영업	385	23.5
	농/임/어업	32	1.9
	주부	245	15.0
	학생	63	3.8
	무직/기타	102	6.2
학력별	중졸 이하	195	11.9
	고졸	660	40.2
	대재 이상	785	47.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88	11.5
	200-400만원 미만	618	37.7
	400-700만원 미만	718	43.8
	700만원 이상	114	7.0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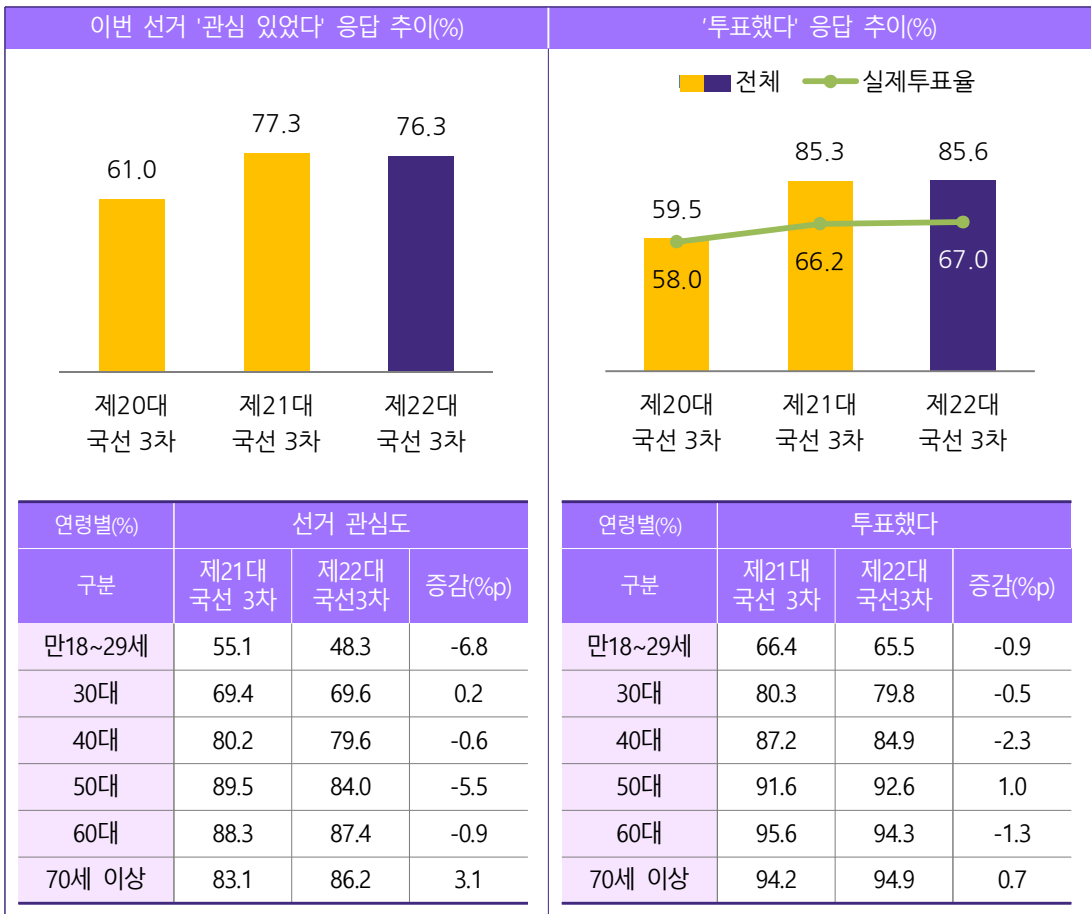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현황

● 이번 선거에 '관심 있었다' 76.3%, '투표했다'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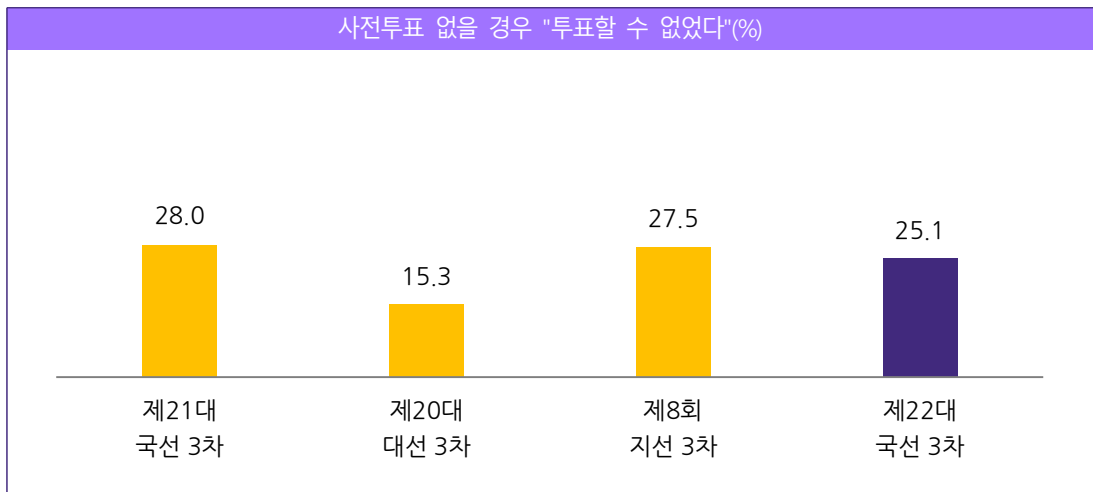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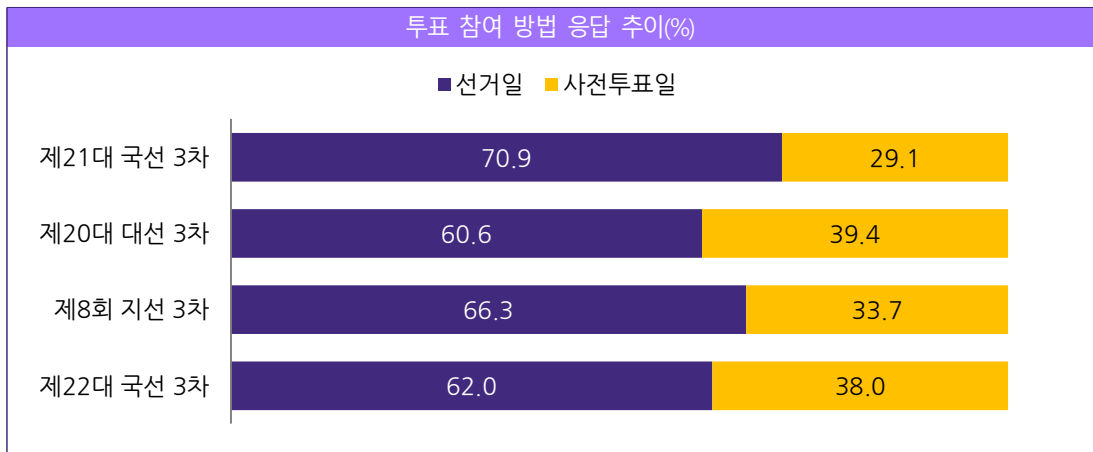
→ 실제 투표율은 제21대 국선 대비 0.8%p 상승한 6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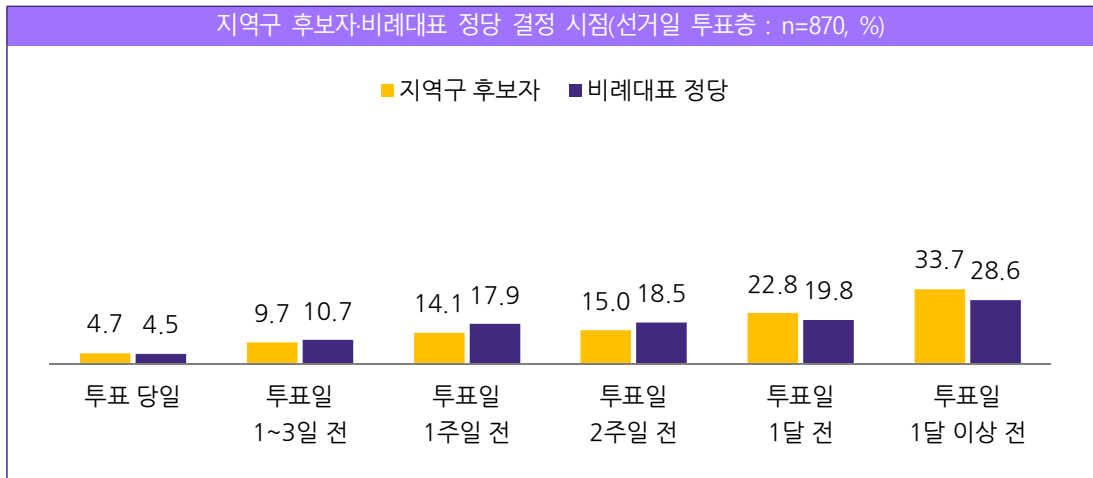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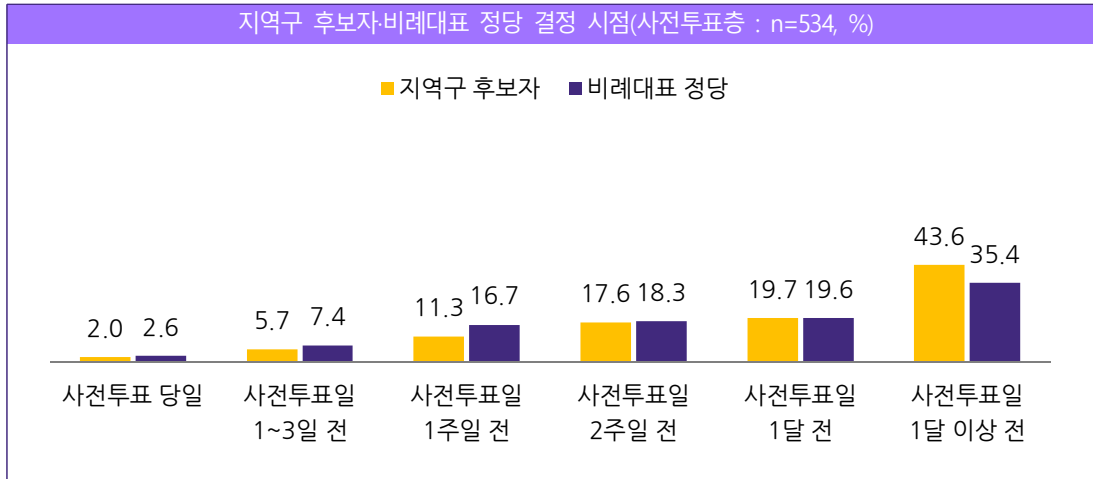
2. 투표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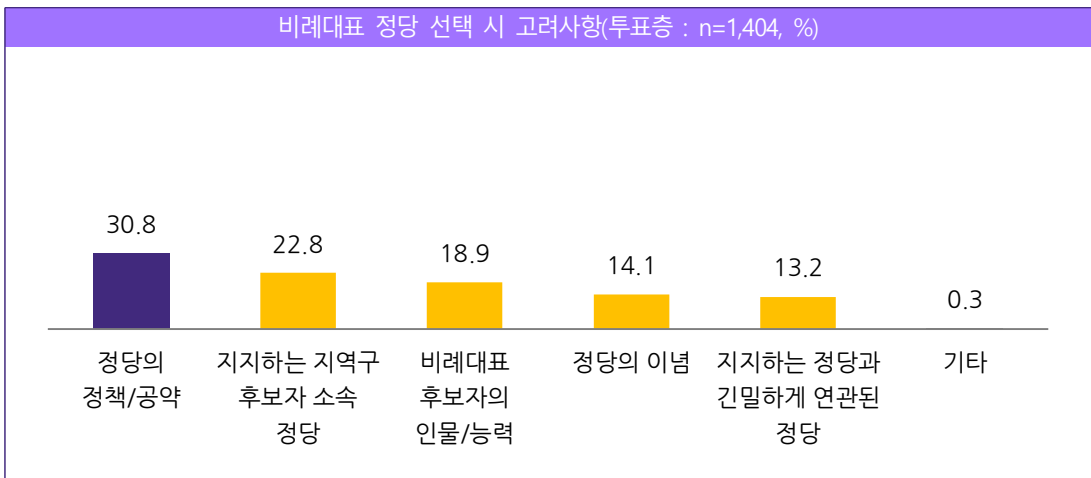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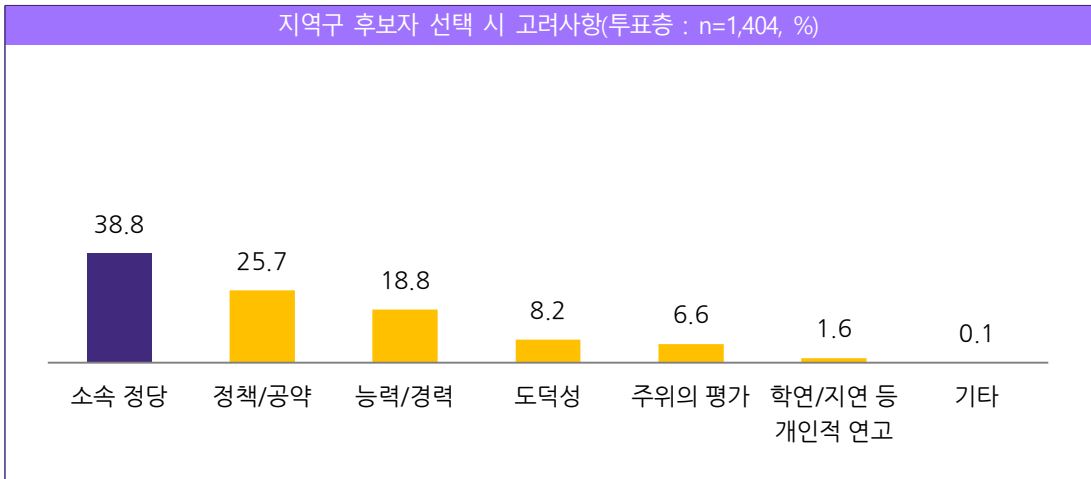
-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62.0%는 선거일 투표에, 38.0%는 사전투표에 참여(실제 사전투표율은 31.28%)
-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 25.1%
- 사전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사전투표가 아닌 선거일 투표 했다면 '후보자, 정당 모두 선택 변화' 2.3%, '후보자 선택 변화' 1.7%, '정당 선택 변화' 4.4%로 나타남



3.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점 / 선택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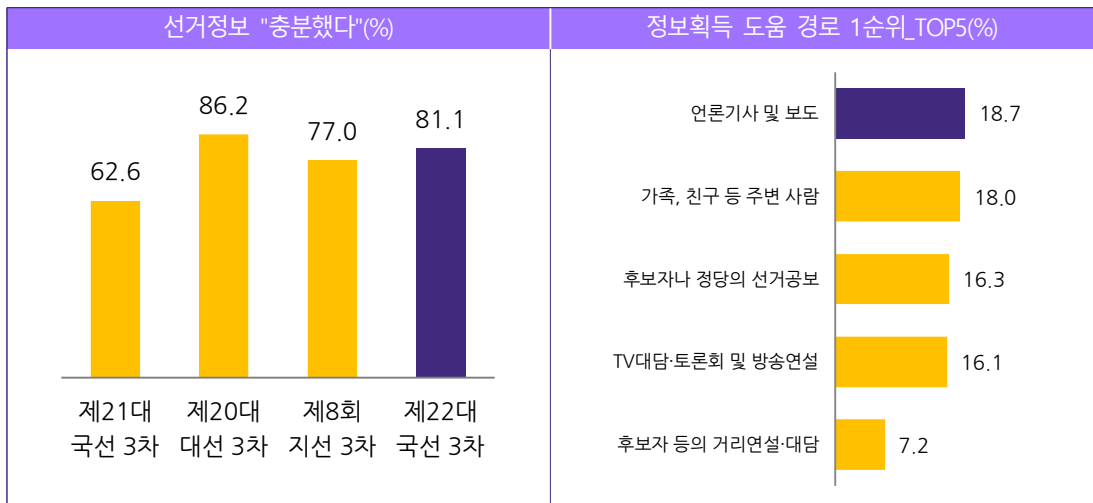
- (사전/선거일)투표자의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결정 시점은 ‘(사전투표일/투표일) 1달 이상 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공통적으로 ‘정책/공약’과 ‘소속 정당’을 중요하게 고려





4.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 정보 충분성

-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81.1%가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정당을 결정하는데 정보가 ‘충분했다’고 응답
→ ‘충분했다’ 응답 지난 국선 대비 18.5%p 증가
-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 ‘언론기사 및 보도’(18.7%)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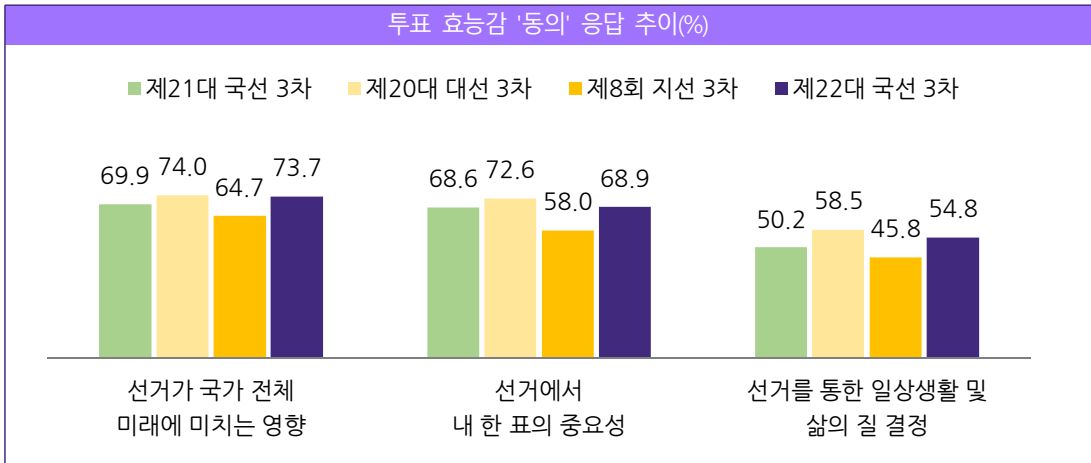




5. 투표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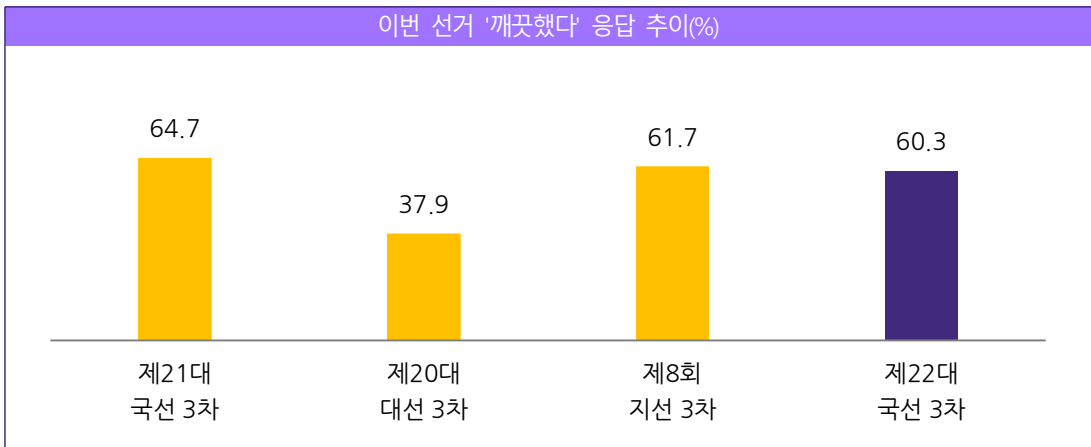
- 투표 효능감에 관한 동의 정도는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73.7%),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68.9%),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5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영역에서의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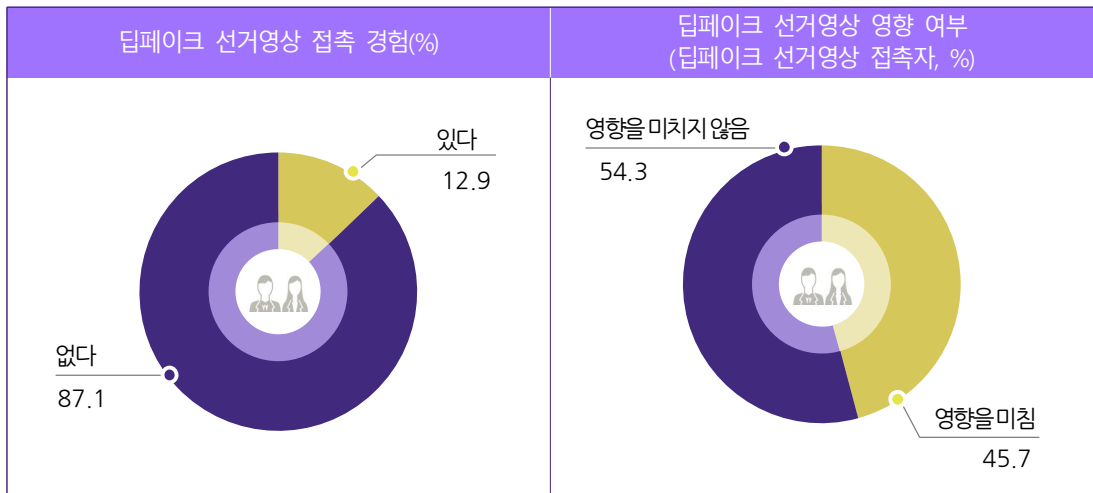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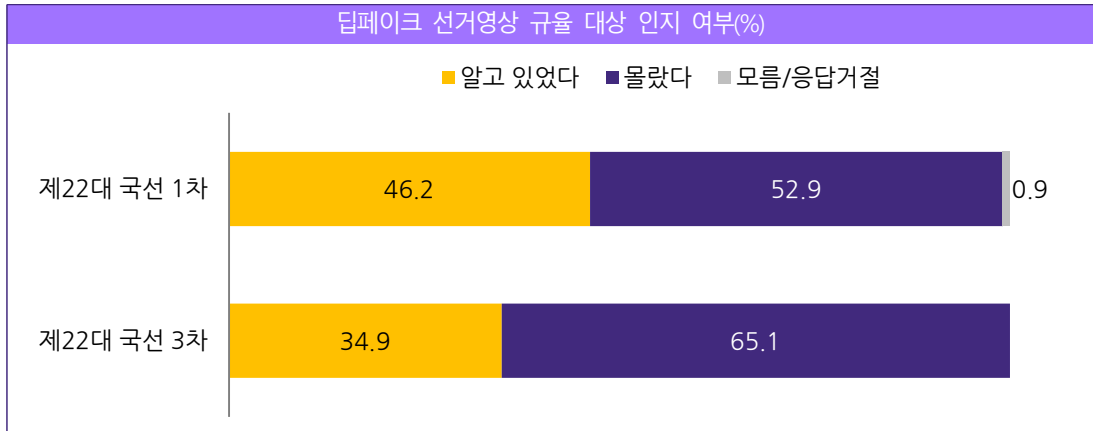
6. 선거 공명성 평가

- 이번 선거가 '깨끗했다'는 응답은 60.3%로 제21대 국선 대비 4.4%p 하락
- 깨끗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61.7%), 깨끗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62.7%)가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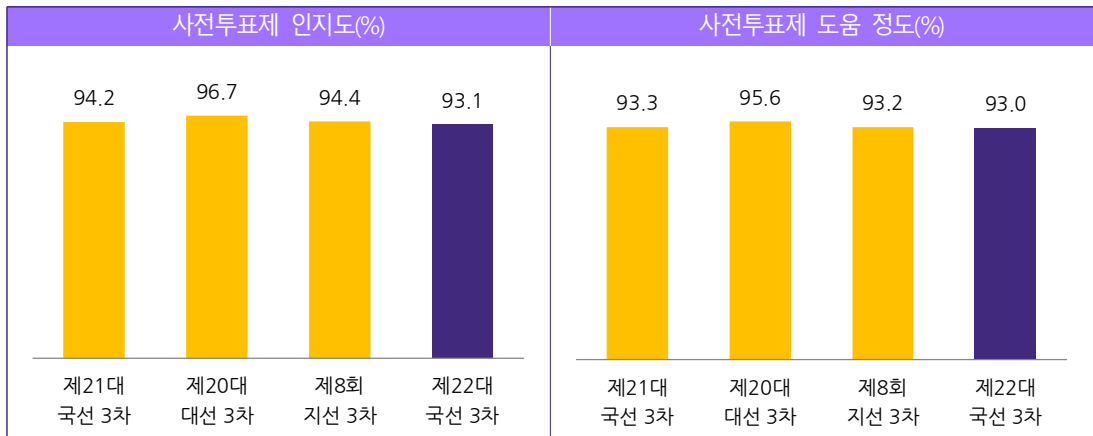
7. 딥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인지 여부

-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 규율 대상인지 ‘알고 있었다’ 34.9%
-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9%
 - 딥페이크 선거영상 접촉자 중 딥페이크 선거영상이 지지 후보자나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5.7%로 나타남



8. 사전투표제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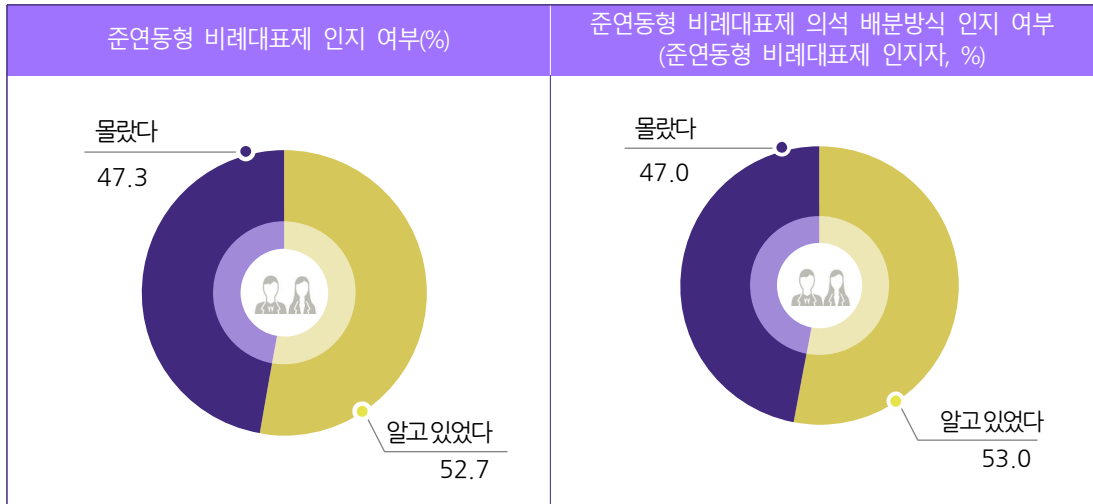
-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었다’ 응답이 93.1%,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 응답이 93.0%
-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돕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89.7%,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85.9%
- 사전투표 후의 사퇴·단일화 등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40.2%, ‘동의하지 않는다’ 24.3%
-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48.6%, ‘동의한다’ 20.1%
 -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 제기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들었고(38.3%)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의 인색날인 등 사전투표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를 가장 적게 들었음(15.4%).
- 향후 사전투표제 운영 방향으로는 ‘현행수준 유지’가 73.6%, ‘사전투표 확대’ 16.4%, ‘사전투표 축소’ 5.1%, ‘사전투표의 전반적 재검토’ 4.9% 순으로 나타남



9. 기타 선거제도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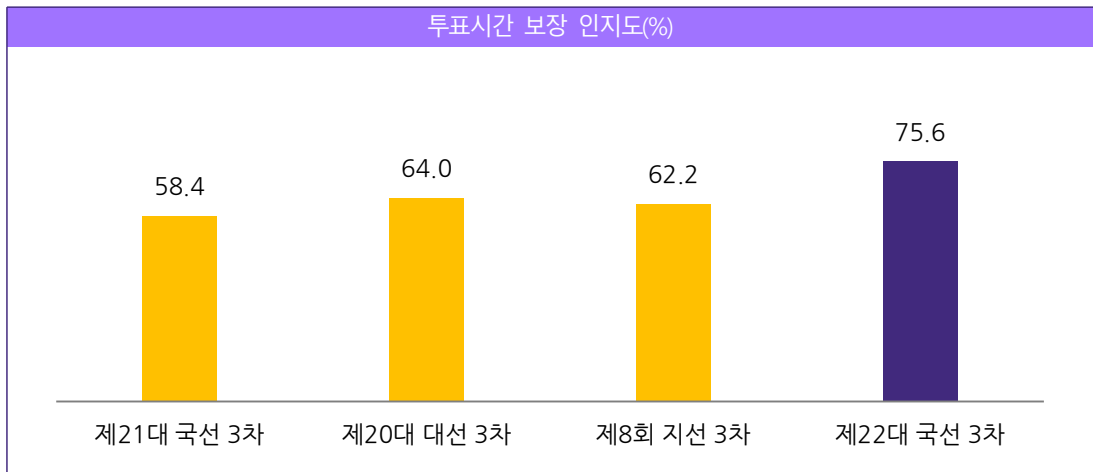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 인지자 중 53.0%가 구체적인 의석 배분방식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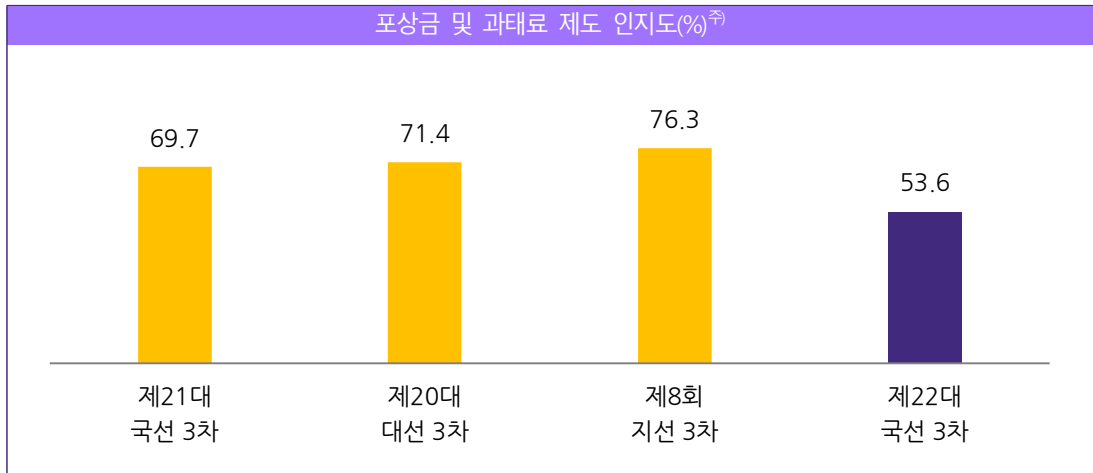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인지도는 75.6%로 이전 국선대비 17.2%p 상승함

→ 선거일에 근무한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응답은 2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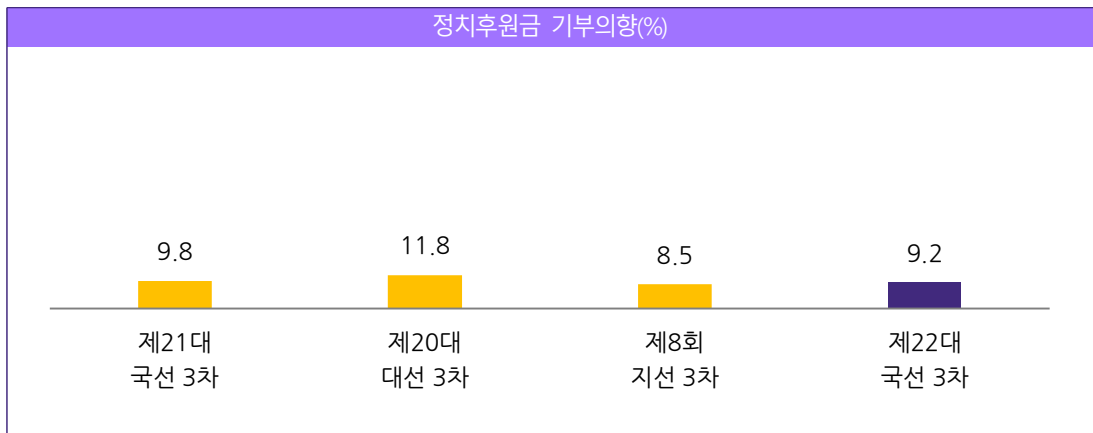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및 금품·음식물 받는 자 과태료제도 ‘알고 있었다’ 53.6%



주) 제20대 대선 3차와 제8회 지선 3차의 인지 비율은 '잘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은 있다'를 합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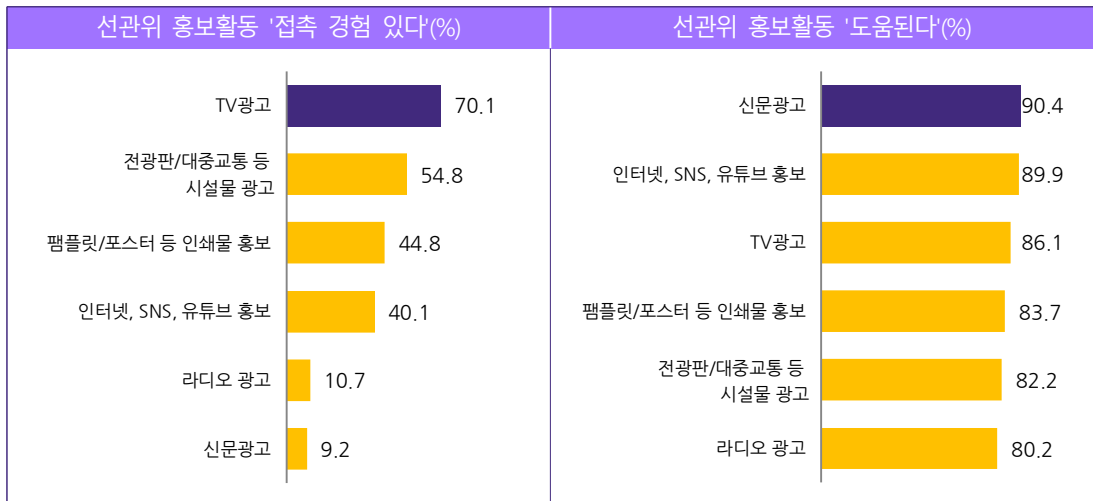
10. 정치후원금 기부의향

● 정치후원금 기부의향 9.2%로 제21대 국선 이후 비슷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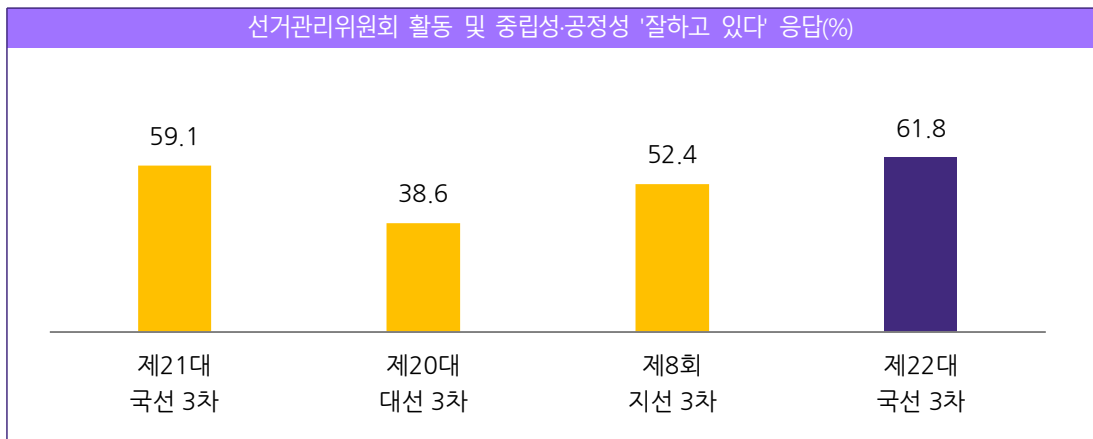
11.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활동 평가

- 응답자의 70.1%가 선거관리위원회의 'TV광고' 접촉
 - 이어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54.8%), '팸플릿/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44.8%),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40.1%) 순으로 나타남
-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경험자 대부분이 '도움된다'고 평가
 - 모든 홍보활동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12.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1.8%로 제21대 국선 대비 2.7%p 상승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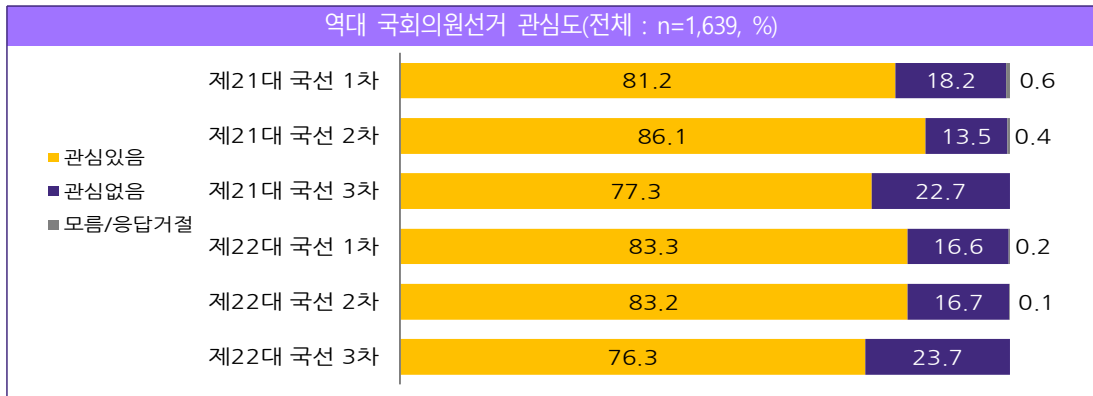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현황

● 이번 선거에 ‘관심 있었다’ 76.3%, ‘투표 했다’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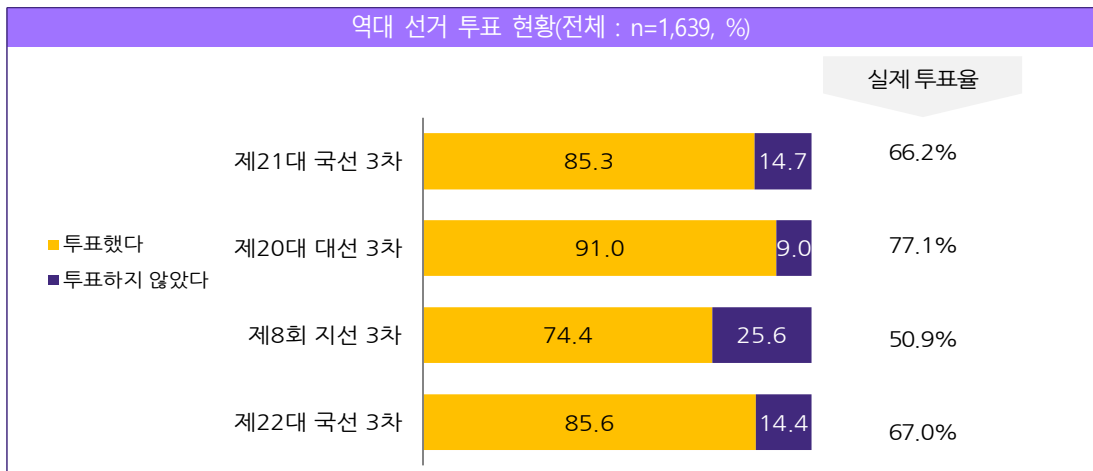
→ 지난 제21대 국선 3차 조사 대비 관심도 및 투표했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

→ 실제 투표율은 제21대 국선 대비 0.8%p 상승한 67.0%로 나타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많이 있었다’ 30.9%, ‘조금 있었다’ 45.4%로 유권자의 76.3%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지난 제21대 국선 대비 관심도는 만18~29세와 50대는 하락(6.8%p, 5.5%p)하고, 70대 이상은 상승(3.1%p)함



구분	제21대 국선 관심도			제22대 국선 관심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전체	81.2	86.1	77.3	83.3	83.2	76.3
만18~29세	64.3	74.1	55.1	56.8	57.9	48.3
30대	83.3	82.2	69.4	77.9	72.7	69.6
40대	87.6	90.9	80.2	88.1	87.5	79.6
50대	82.7	87.9	89.5	90.8	92.0	84.0
60대	88.1	91.6	88.3	91.7	91.2	87.4
70세 이상	82.9	92.0	83.1	91.6	95.4	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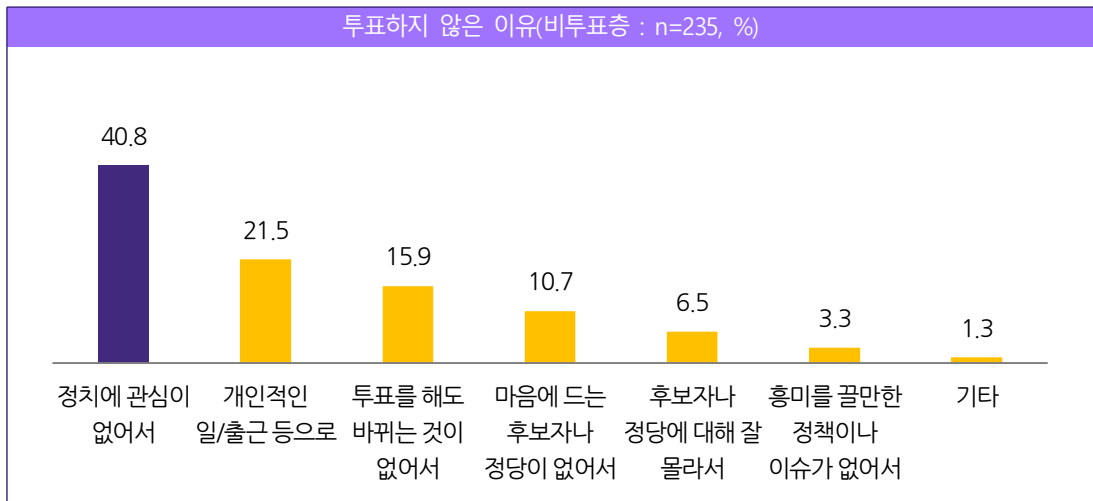
2. 투표하지 않은 이유

● 투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

→ 제20대 대선을 제외하면 다른 선거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

→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는 21.5%로 응답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제21대 국선 대비 8.1%p 증가함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n=221)	(n=135)	(n=389)	(n=235)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2.7	25.5	29.8	40.8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6.9	16.8	17.5	21.5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16.0	7.4	18.1	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	10.9	34.6	11.8	10.7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잘 몰라서	7.4	2.2	9.2	6.5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	2.8	2.9	5.9	3.3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7.3	3.8	1.3	
상호비방, 돈 선거 등 선거운동에 실망해서	1.3	2.3	1.6	
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2.2	0.8	4.9	
기타	2.6	3.7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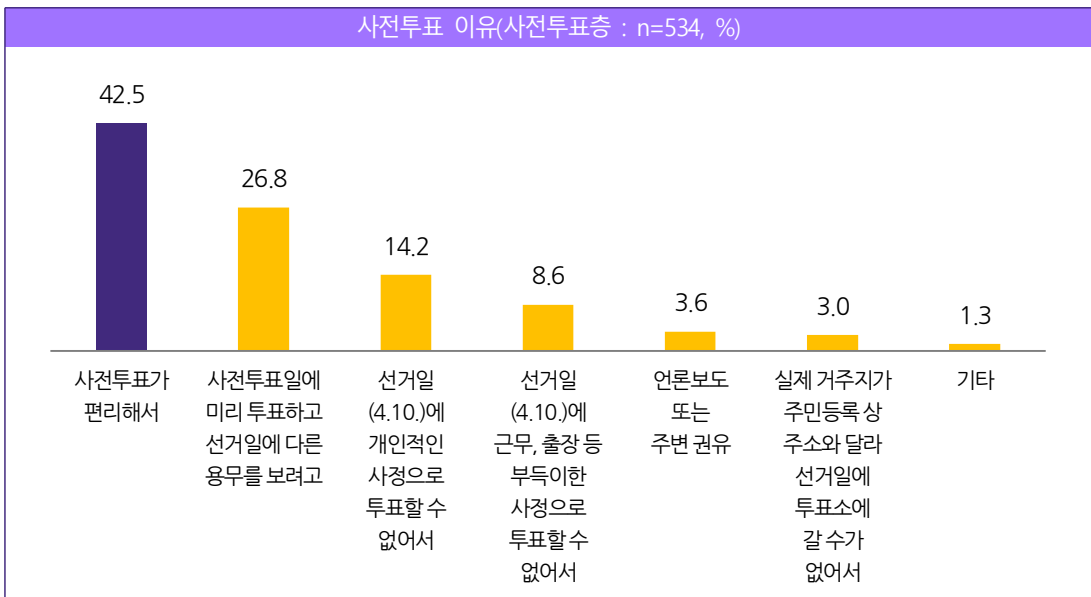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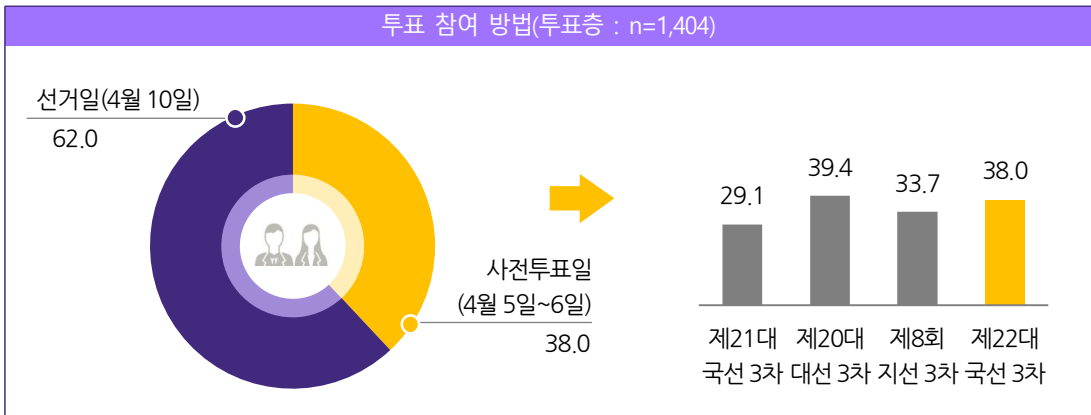
주) 제22대 국선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상호비방, 돈 선거 등 선거운동에 실망해서', '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보기가 없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3. 투표 참여 방법 / 사전투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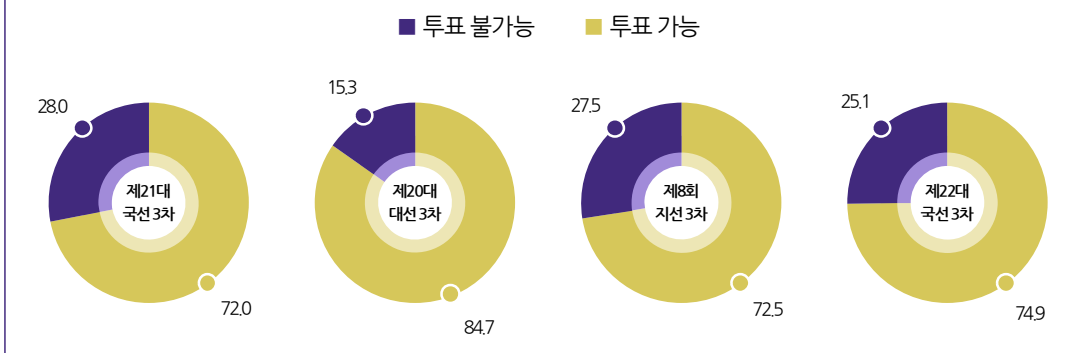
●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38.0%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실제 사전투표율은 31.28%)

- 사전투표한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가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26.8%,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전투표자 중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25.1%로, 제8회 지선(27.5%), 제21대 국선(28.0%)보다 낮고 제20대 대선(15.3%)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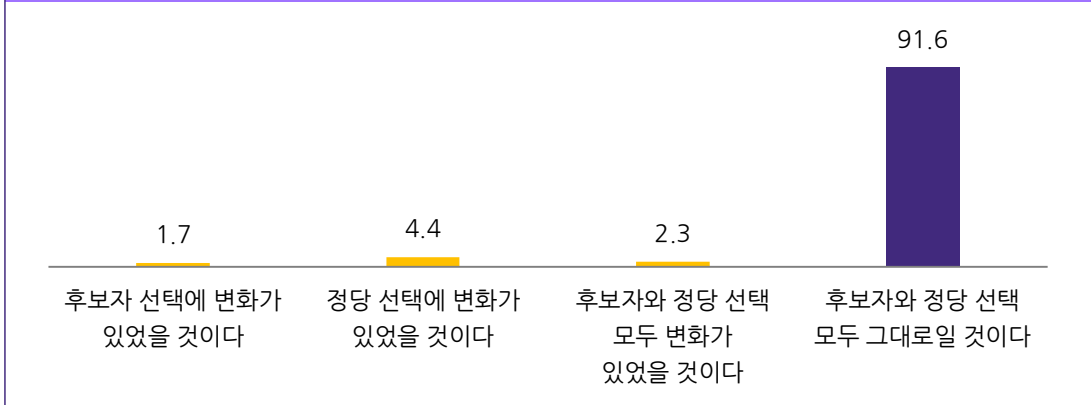
· 사전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에게 만약 사전투표가 아닌 선거일에 투표했다면 후보자 또는 정당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91.6%가 ‘후보자와 정당 선택 모두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따른 후보자와 정당 선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사전투표 없을 경우 선거일 투표 가능 여부(사전투표층 : n=5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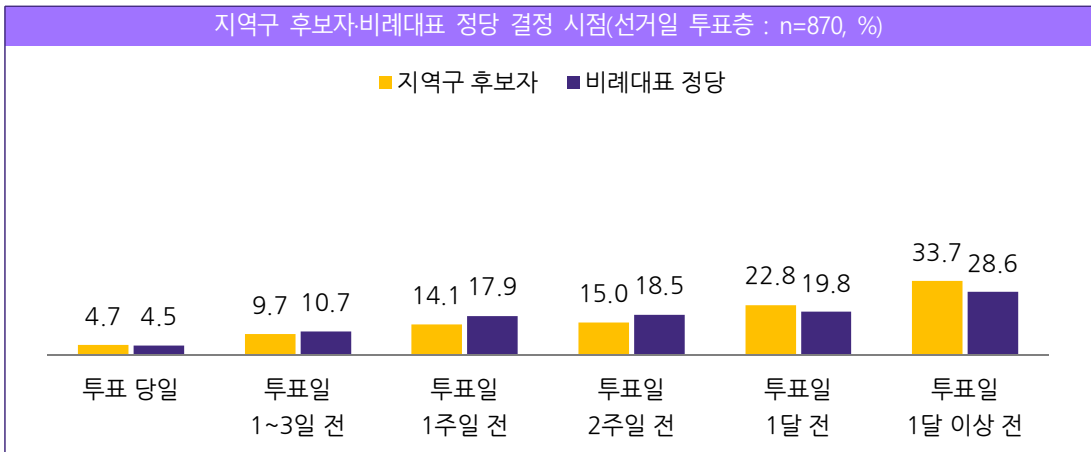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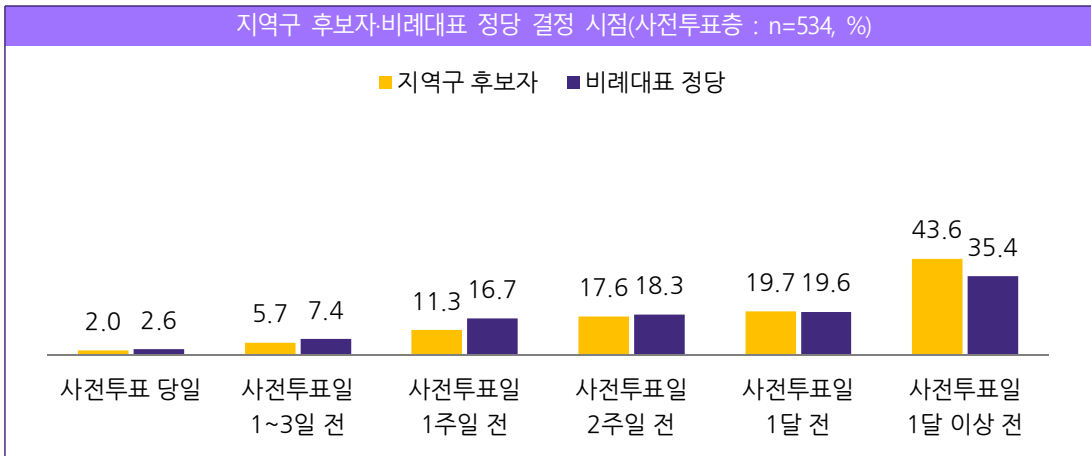
만약 사전투표 아닌 선거일 투표한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 선택 변화(사전투표층 : n=5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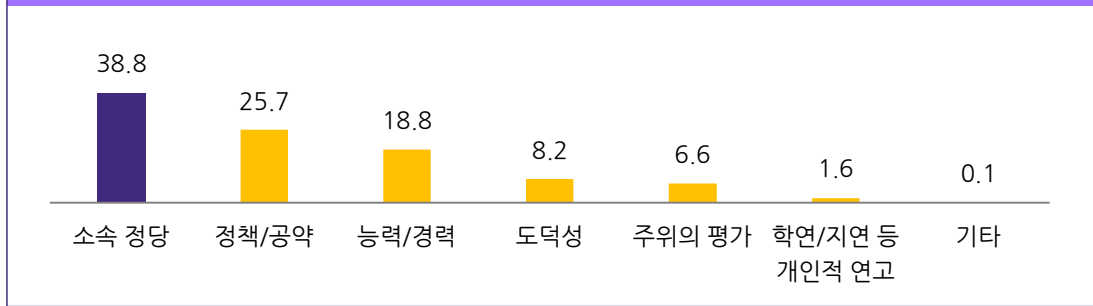
4.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점과 선택 시 고려사항

- (사전/선거일)투표자가 선택한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점은 ‘(사전투표일/투표일) 1달 이상 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으로 ‘소속 정당’(38.8%), ‘정책/공약’(25.7%)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 등은 낮게 나타남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한 사항으로는 ‘정당의 정책/공약’(30.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투표층 : n=1,4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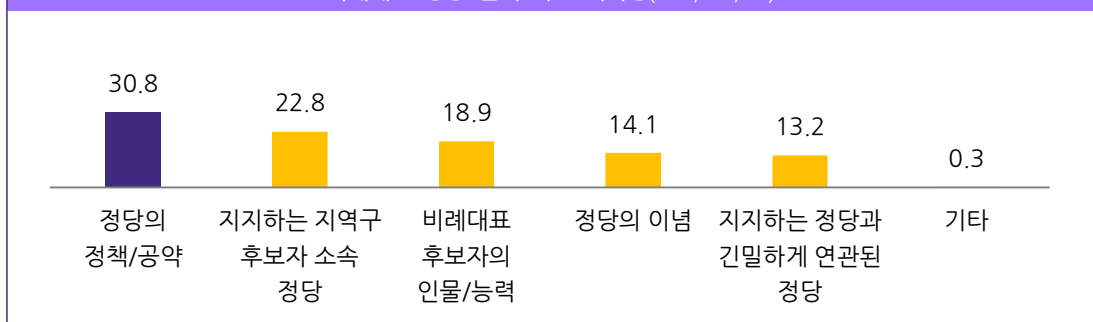


지지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투표층 : n=1,404)	제21대 국선 3차 (n=1,279)	제20대 대선 3차 (n=1,377)	제8회 지선 3차 (n=1,131)	제22대 국선 3차 (n=1,404)
	소속 정당	41.9	26.3	26.5
정책/공약	20.7	31.5	29.4	25.7
인물·능력·도덕성	24.6	26.0	25.9	
능력/경력				18.8
정치 경력	3.4	5.1	4.4	
도덕성				8.2
주위의 평가	7.0	10.0	11.7	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	0.8	0.2	1.2	1.6
출신 지역	1.3	0.9	0.8	
기타	0.3	0.1	0.1	0.1

주)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는 '주위의 평가'라고 물어보았던 문항을 '가족·지인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 '언론 등 평가', '인터넷,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평가'로 구분하여 질문함

주) '능력/경력', '도덕성'은 기존의 '인물·능력·도덕성', '정치경력' 선택지에서 제22대 국선에 변경된 것으로 비교시 주의가 필요함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n=1,4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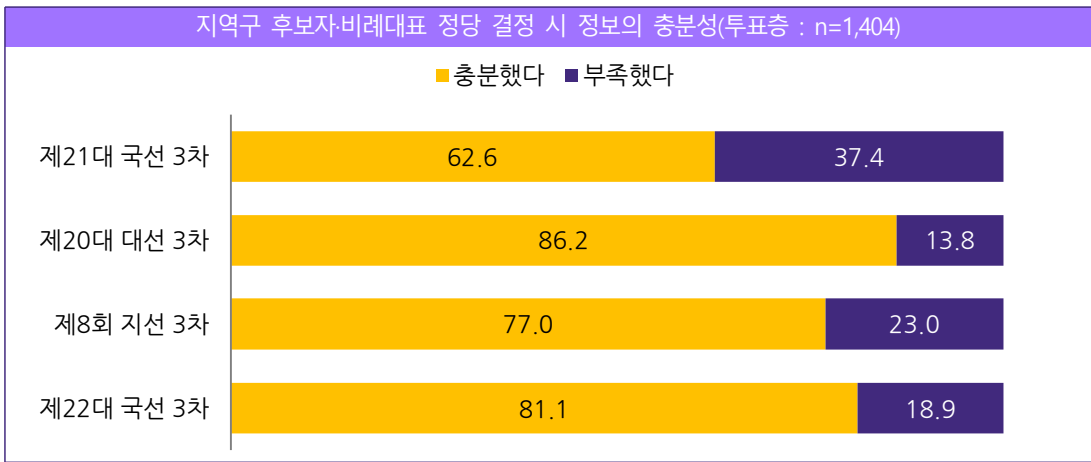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정당의 정책/공약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정당의 이념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기타	모름/응답거절
제22대 국선 1차	22.9	19.6	24.8	12.2	13.5	0.2	6.8
제22대 국선 2차	27.7	19.4	20.3	12.1	11.7	0.6	8.1
제22대 국선 3차	30.8	22.8	18.9	14.1	13.2	0.3	-



5.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 정보 충분성·획득 경로

-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 정보 '충분했다' 81.1%
 - '충분했다' 응답 지난 제21대 국선 대비 18.5%p 증가
-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 '언론기사 및 보도'(18.7%)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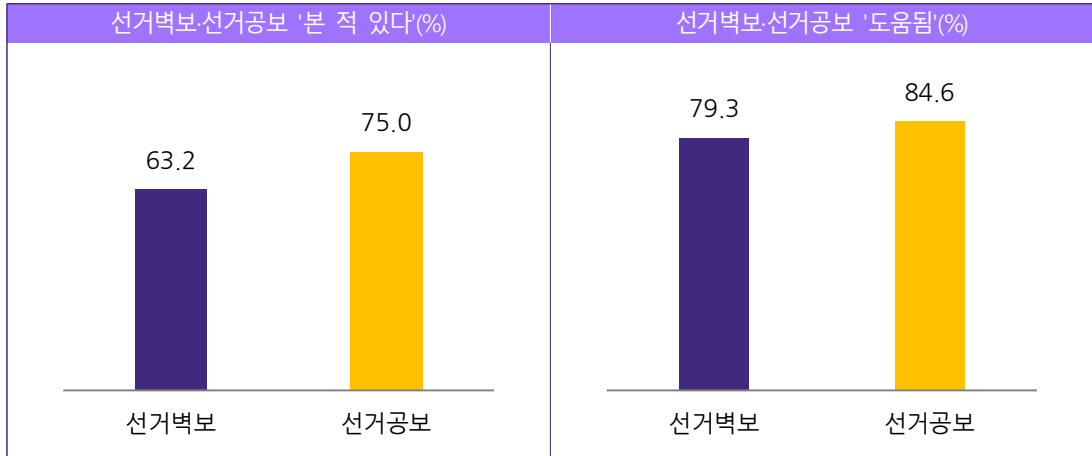


지역구 후보자·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1순위 (투표층 : n=1,404)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언론기사 및 보도	28.2	27.1	27.1	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	25.3	16.2	16.5	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				16.3
후보자의 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등)	21.7	3.7	13.5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11.5	36.6	19.7	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	5.4	5.3	9.7	7.2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				6.8
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3.9	2.7	2.9	5.7
후보자의 선거벽보				4.3
후보자의 전화·문자메세지 선거운동	2.7	1.9	3.8	2.8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1.7
밴드,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1.4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0.6	0.6	2.5	1.0
인터넷,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5.4	3.9	
기타	0.8	0.4	0.4	0.1

주) 제22대 국선에서는 '후보자의 홍보물(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후보자의 선거벽보'로, '인터넷,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 '밴드,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로 나누어 질문함
 주) 지선의 경우 광역단체장 1순위

6. 선거벽보·선거공보 접촉 및 도움 정도

- 선거벽보 '본 적 있다' 63.2%,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 선택에 '도움 된다' 79.3%
- 선거공보 '본 적 있다' 75.0%,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 선택에 '도움 된다'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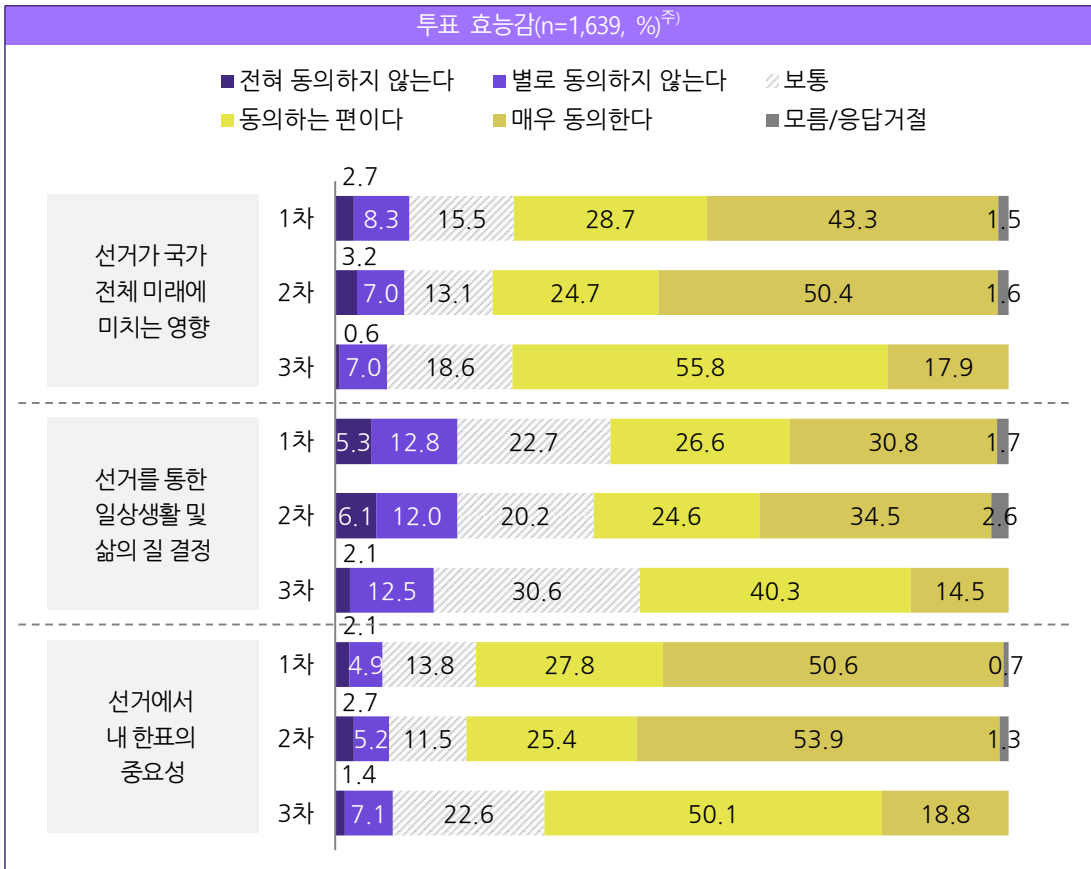


7.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73.7%),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68.9%),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5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영역에서의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

- 투표 효능감 동의 정도는 전체 영역에서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하였으며,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70% 이상 높은 효능감을 보임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에 대한 동의 비율은 54.8%로 제21대 국선 대비 4.6%p 증가하였지만,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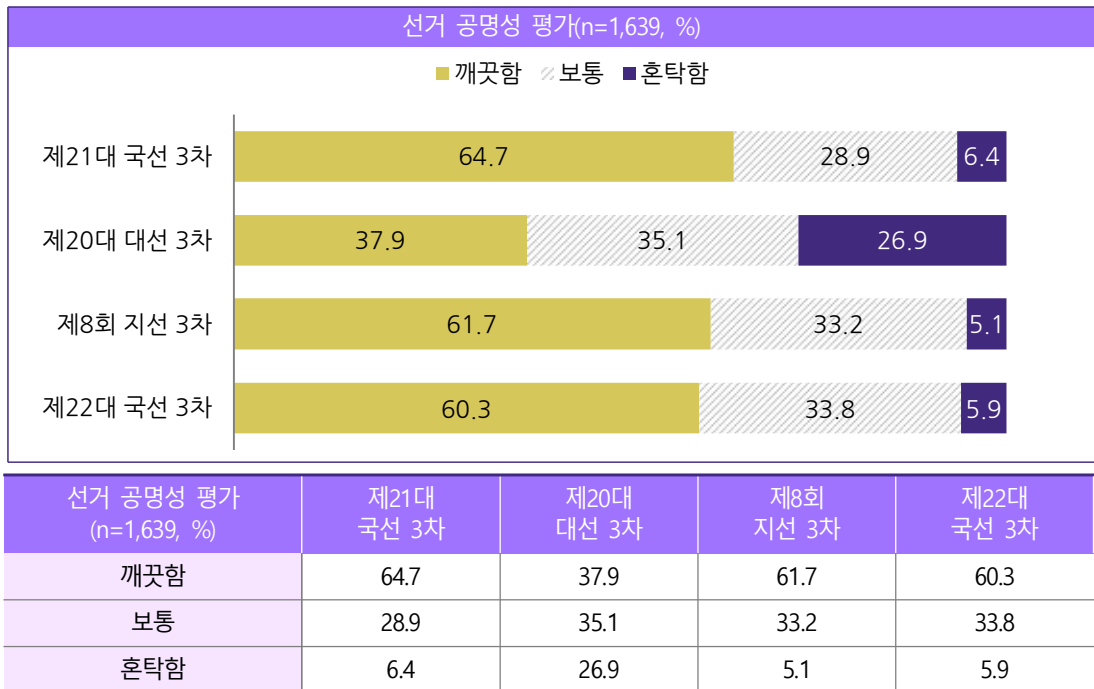
주) 3차 면접조사 설문지 보기에는 '모름/응답거절'이 없음

투표 효능감 '동의' (%)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	69.9	74.0	64.7	73.7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50.2	58.5	45.8	54.8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68.6	72.6	58.0	68.9

8. 선거 공명성 평가

- 이번 선거의 공명성 평가에 대해 '깨끗했다'는 응답은 60.3%, '흔탁했다'는 응답은 5.9%

- 이번 선거의 공명성에 대해 '매우 깨끗했다' 6.9%, '다소 깨끗했다' 53.3%로 유권자 5명 중 3명 정도(60.3%)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선거 공명성 긍정 평가는 제21대 국선(64.7%) 대비 4.4%p, 직전 선거인 제8회 지선(61.7%) 대비 1.4%p 각각 하락하였음





8-1. 선거 공명성 평가 이유

- 공명성 긍정 평가 이유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 39.5%,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49.3%로 가장 많음

- 선거공명성에 대하여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1+2순위 기준 61.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이어서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법 준수'(41.4%),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감시·단속'(30.3%)을 꼽음
- 선거공명성에 대하여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1+2순위 62.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이어서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46.4%), '가짜뉴스 때문에'(43.2%)를 꼽음

공명했다고 평가하는 이유 (긍정평가자 : n=988, %)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	44.9	65.3	33.1	56.4	31.0	53.9	39.5	61.7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법 준수	18.9	39.7	19.5	38.5	23.5	43.3	18.4	41.4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감시·단속 때문에	10.8	31.7	13.7	31.8	15.0	34.2	11.6	30.3
언론의 공정한 보도 때문에	8.7	17.8	14.3	26.6	10.4	21.0	10.1	18.3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 때문에	7.5	17.9	7.0	15.3	5.4	15.0	9.9	21.4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준수되었기 때문에	3.3	8.9	5.8	13.2	5.4	12.4	5.7	13.2
검찰·경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단속 때문에	5.6	14.1	6.4	17.8	9.3	20.2	4.9	13.6
기타	0.3	0.5	0.2	0.2	-	-	-	-

공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유 (부정평가자 : n=97, %)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30.5	49.3	56.8	76.3	40.1	71.1	49.3	62.7
가짜뉴스 때문에							29.9	43.2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35.9	58.2	22.3	58.6	42.4	69.6	8.0	46.4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처리 때문에	6.8	17.6	4.9	20.7	4.7	19.9	3.1	11.1
공무원의 선거 관여 때문에	2.9	13.6	7.0	11.9	1.4	6.4	3.0	9.2
금품제공·수수 등 돈선거 때문에	6.9	9.9	1.0	3.0	-	4.2	2.1	3.2
후보자 팬클럽, 산악회 등 사조직 개입 때문에	2.0	6.1	1.2	4.0	-	6.2	2.0	13.0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 및 예방조사 활동 때문에	12.1	26.7	6.1	23.6	11.5	22.7	1.9	9.2
기타	3.0	6.0	0.7	1.5	-	-	0.9	0.9

주) 제22대 국선 3차에서는 공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 '가짜뉴스 때문에'가 추가되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9. 딥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인지 여부

●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 규율대상인지 '알고 있었다'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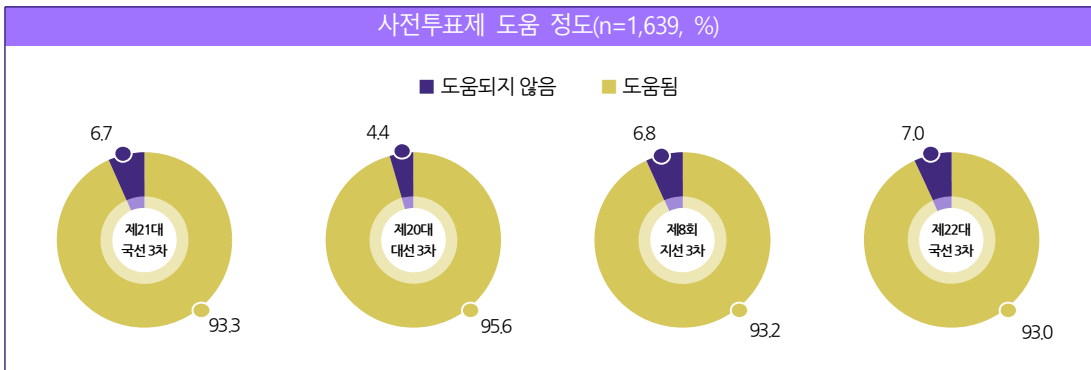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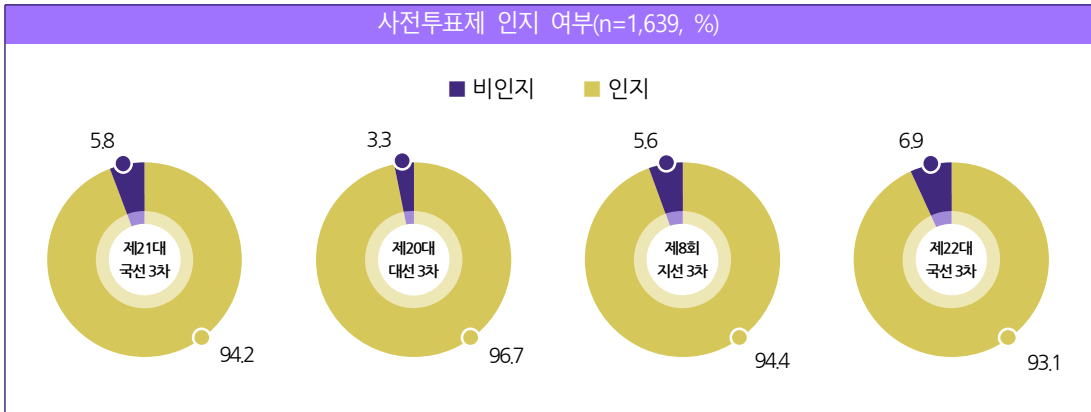
-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규율 대상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의 경우(특히 60~70세 이상) 딥페이크 영상 규율에 대하여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n=1,639, %)	딥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인지 여부
전체	34.9
만18-29세	38.7
30대	48.5
40대	45.0
50대	35.0
60대	28.0
70세 이상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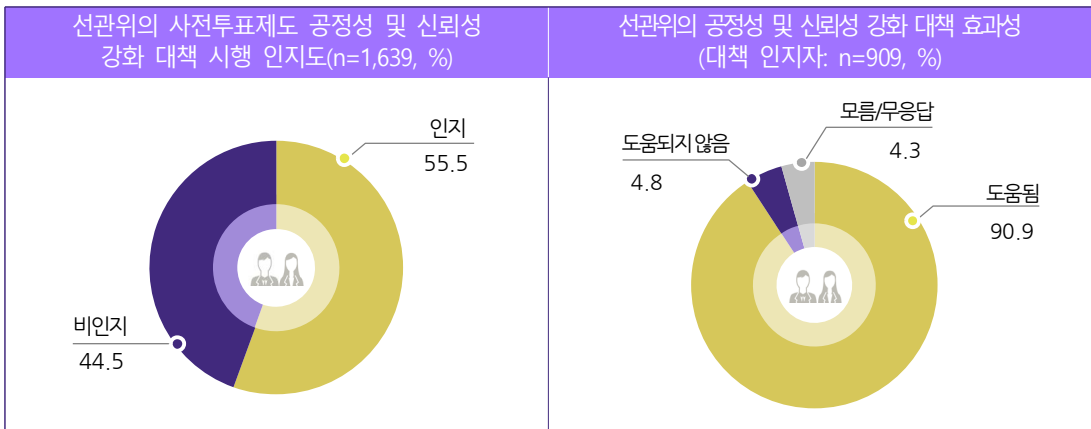
10. 사전투표제 관련 인식

● 응답자 10명 중 9명, 사전투표제 ‘알고 있었다’(93.1%), 투표참여에 ‘도움 된다’(93.0%)

·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었다’(93.1%)는 응답과 ‘도움 된다’(93.0%)는 응답 모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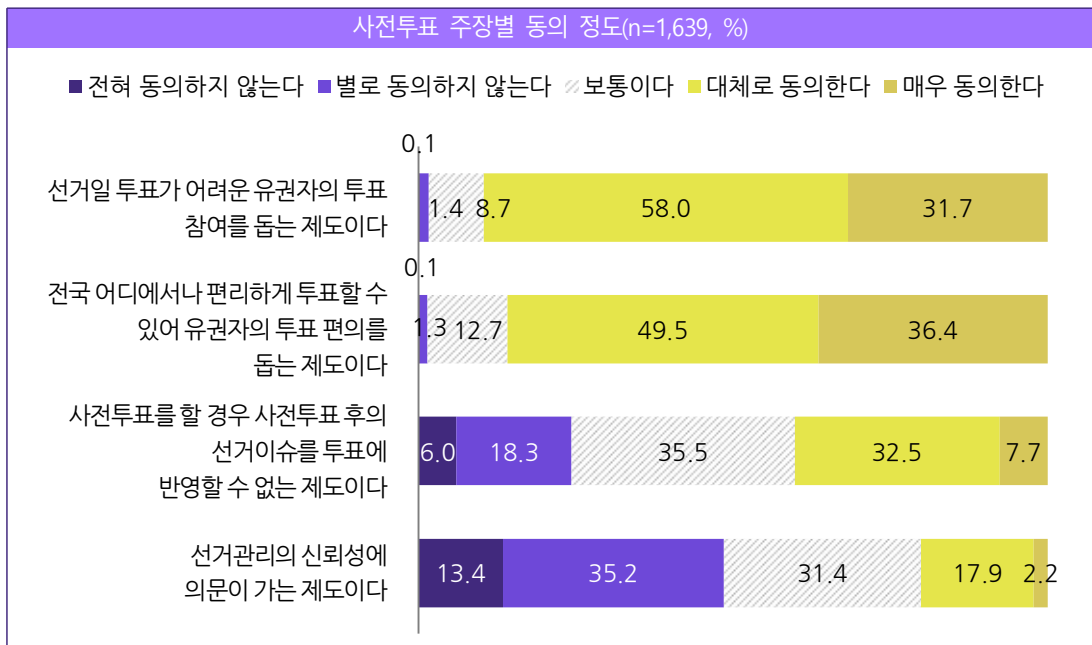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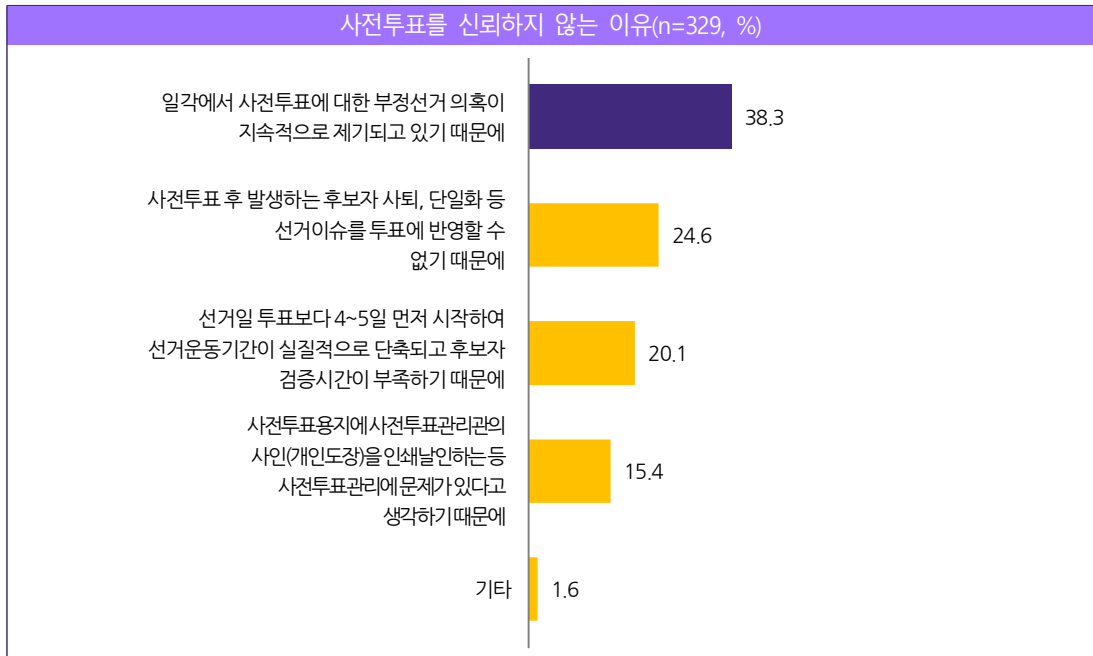
●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시행한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대책을 ‘알고 있었다’ 55.5%, 인지자의 90.9%는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에 도움된다고 응답



-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돕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89.7%,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85.9%
- 사전투표제도는 사전투표 후의 사퇴·단일화 등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40.2%, '동의하지 않는다' 24.3%
-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48.6%, '동의한다'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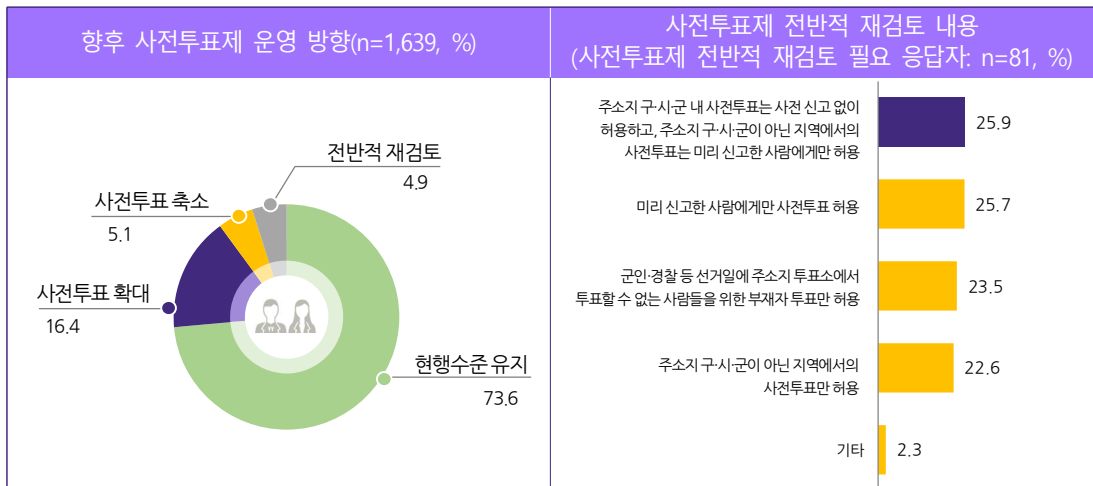
·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 제기되기 때문에'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전투표 후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24.6%), '선거운동기간의 실질적 단축 및 후보자 검증시간 부족 때문에'(20.1%),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의 인색날인 등 사전투표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15.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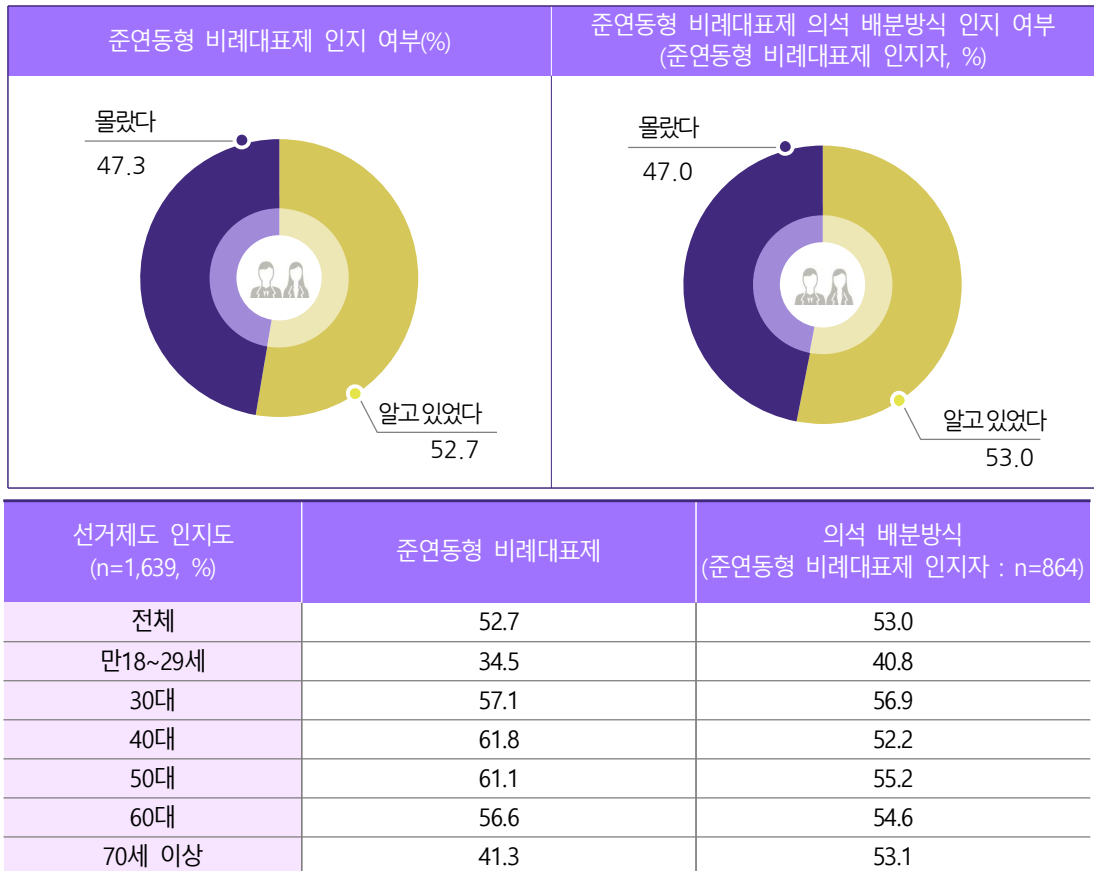
● **사전투표제 운영 방향 ‘현행수준 유지’ 73.6%**

- 사전투표제 운영 방향에 대해 ‘현행수준 유지’가 7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전투표 확대’(16.4%), ‘사전투표 축소’(5.1%), ‘전반적 재검토’(4.9%) 순으로 나타남
- 사전투표제를 ‘전반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재검토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소지 구·시·군 내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 없이 허용하고,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25.9%), ‘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사전투표 허용’(25.7%), ‘군인·경찰 등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투표만 허용’(23.5%),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만 허용’(22.6%) 순으로 나타남



1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 여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고 있었다'는 52.7%였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자 중 의석 배분방식 '알고 있었다' 53.0%
- 만 18~29세와 70세 이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의석 배분방식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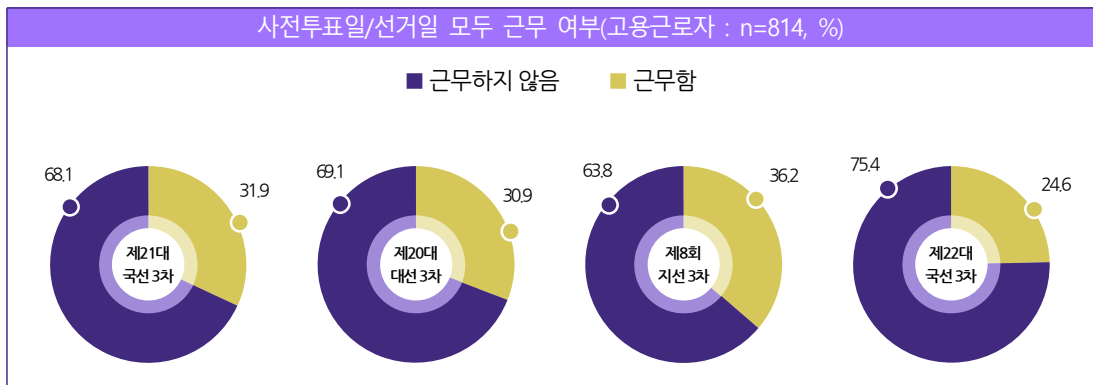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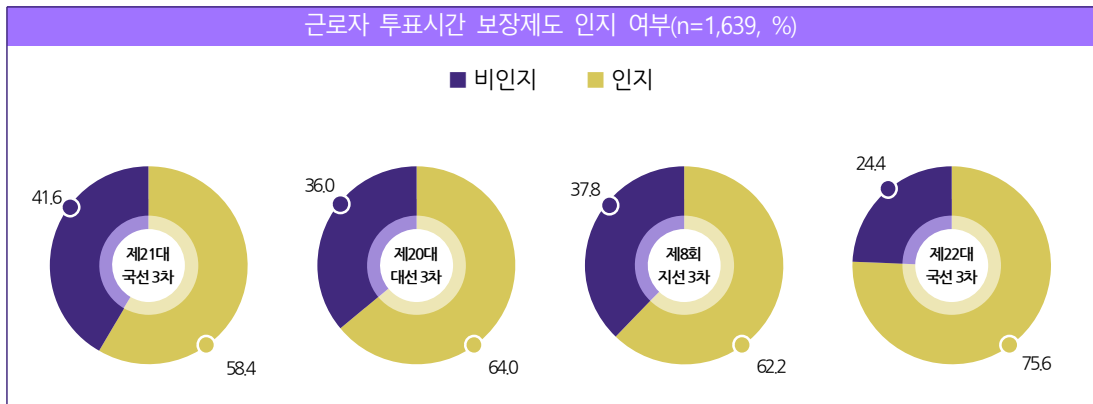


1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인지 여부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인지도 75.6%

→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응답은 75.6%로, 제21대 국선 대비 17.2%p 증가함

· 고용근로 중인 응답자 814명 중 24.6%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4.2%는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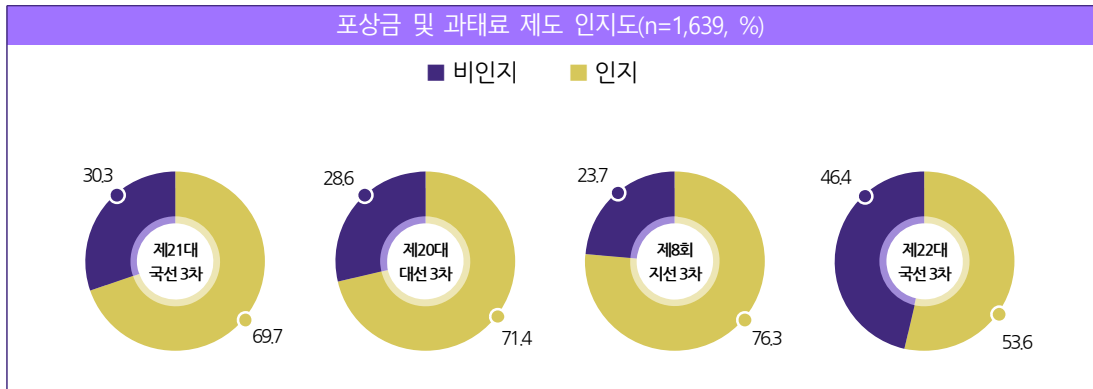
사전투표일/선거일 모두 근무 여부 (고용근로자 : n=814, %)	근무하지 않음	근무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여부 (투표일 근무자 : n=200)		
			적극적 보장	형식적 보장	보장해주지 않음
제21대 국선	68.1	31.9	60.2	24.2	15.6
제22대 국선	75.4	24.6	53.2	22.7	24.2

주) 고용근로자 814명은 “문 21) ○○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사전투표일(4월 5일, 6일)과 선거일(4월 10일) 모두 근무하셨습니다가?”에서 “3. 고용된 사람 아님”을 제외한 고용근로자 수임

13. 기타 선거제도 관련 인식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및 금품·음식물 받는 자 과태료제도 '알고 있었다'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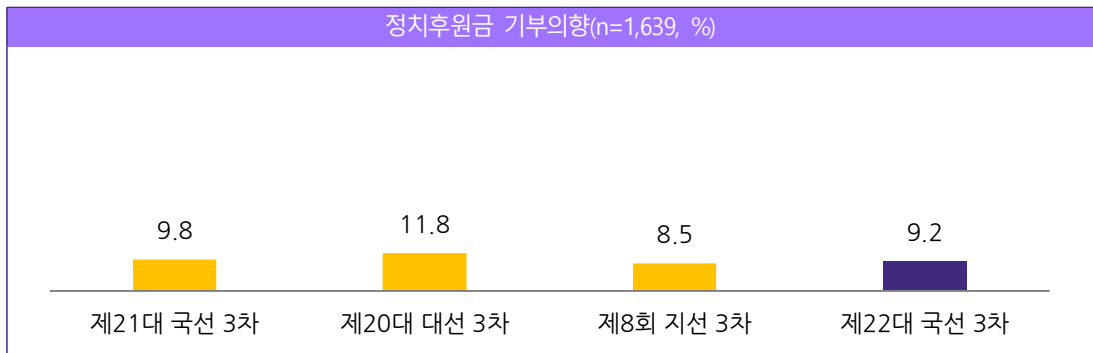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및 금품·음식물 받는 자 과태료제도 인지도는 53.6%로 이는 제21대 국선(69.7%) 대비 16.1%p 하락한 수치임



주) 제20대 대선 3차와 제8회 지선 3차의 인지 비율은 '잘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은 있다'를 합한 비율임

● 정치후원금 기부의향 9.2%

- 정치후원금 기부의향 9.2%는 제21대 국선(9.8%)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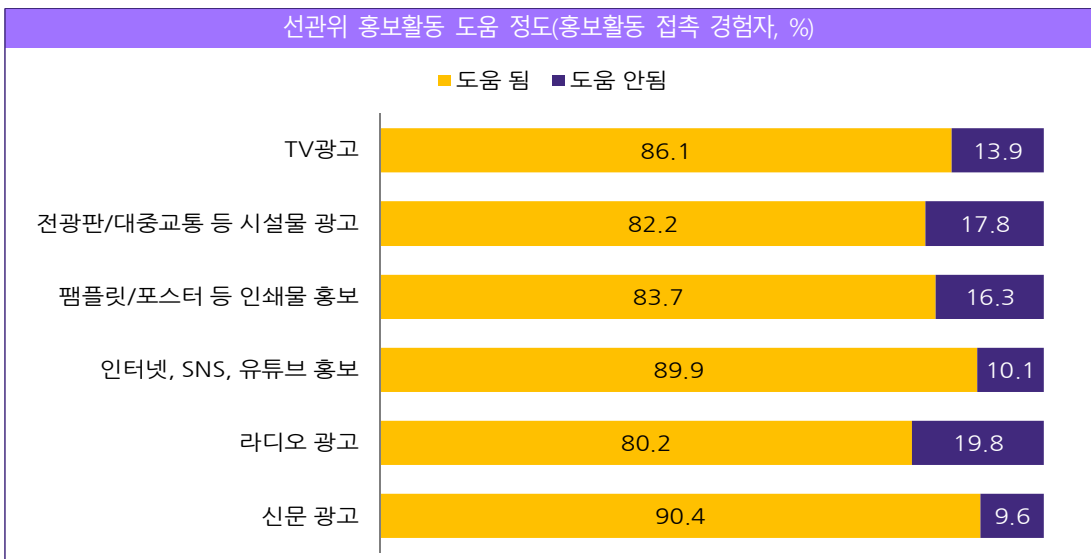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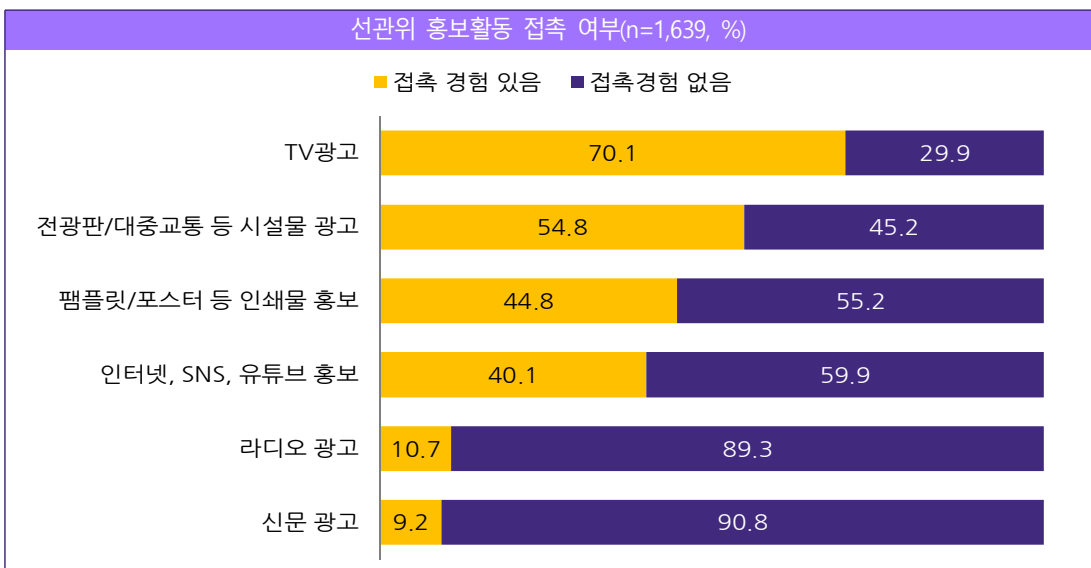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n=1,639, %)	있다	없다
전체	9.2	90.8
만18-29세	4.7	95.3
30대	8.5	91.5
40대	12.0	88.0
50대	13.8	86.2
60대	9.4	90.6
70세 이상	5.2	94.8



14.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

- 응답자의 70.1%가 선거관리위원회의 'TV광고' 접촉
-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접촉 경험자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의 접촉 경험은 'TV 광고'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54.8%), '팸플릿/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44.8%),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40.1%) 순으로 나타남
- 제21대 국선과 비교시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가 40.1%로 접촉률이 10.5%p 증가함
- 모든 홍보활동에 '도움이 됨' 응답이 80% 이상으로 평가되며, 특히 '신문 광고'(90.4%),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89.9%)와 'TV 광고'(86.1%)가 높게 나타남



선관위 홍보활동 접착 경험(n=1,639, %)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TV광고	77.8	56.4	46.7	70.1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	35.1	32.2	23.1	54.8
팸플릿/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46.1	42.9	30.2	44.8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	29.6	27.1	24.3	40.1
라디오 광고	21.2	17.1	14.4	10.7
신문 광고	27.5	18.9	14.6	9.2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	52.2	50.6	34.3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	19.3	19.6	18.6	

주) 제22대 국선 3차에서는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와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 보기가 없음

주) 제21대 국선 3차~제8회 지선 3차의 경우 '인터넷, SNS 홍보'이며, 유튜브 홍보는 없었음

주) 제21대 국선 3차~제8회 지선 3차의 경우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는 '지하철/버스 등 광고'로, 전광판 광고는 포함되지 않았음

선관위 홍보활동 접착 경험 있다(%)	TV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	팸플릿/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
전체(n=1,639)	70.1	10.7	9.2	54.8	44.8	40.1
투표자(n=1,404)	74.3	11.3	10.1	55.7	46.5	40.8
비투표자(n=235)	45.0	7.4	4.2	49.8	34.5	35.7

선관위 홍보활동 도움 정도 (홍보물 접착경험자, %)	제21대 국선 3차	제20대 대선 3차	제8회 지선 3차	제22대 국선 3차
TV광고	87.4	80.4	82.8	86.1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	86.0	76.6	71.9	82.2
팸플릿/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87.0	82.3	81.4	83.7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	80.8	80.2	73.1	89.9
라디오 광고	82.2	77.6	66.9	80.2
신문 광고	80.0	79.6	77.7	90.4
현수막/배너/가로등현수기/홍보탑 광고	81.3	77.9	79.8	
선거체험행사 및 거리 캠페인	86.0	79.7	78.4	



●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홍보활동 ‘효과 있음’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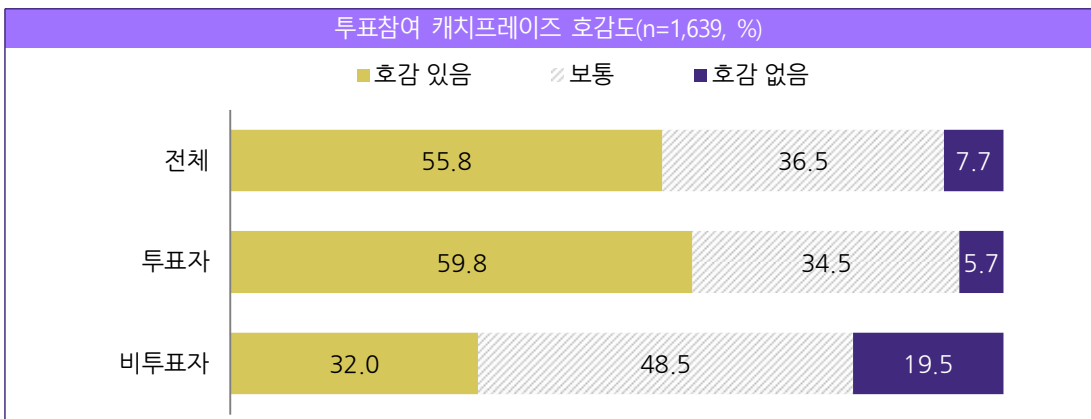
-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홍보활동 접촉자의 71.8%가 온라인 홍보활동이 ‘효과 있었다’(매우 효과가 있었다 : 8.3% +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 63.4%)고 응답함

선관위 온라인 홍보활동 효과 (온라인 홍보 접촉 경험자, %)	매우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보통이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
전체	8.3	63.4	23.4	4.7	0.1

●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호감도 55.8%

- 이번 선거의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인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호감있다’고 응답함. ‘호감없다’는 7.7%로 나타남
- 투표자의 호감도는 59.8%로, 비투표자(32.0%)보다 27.8%p 높음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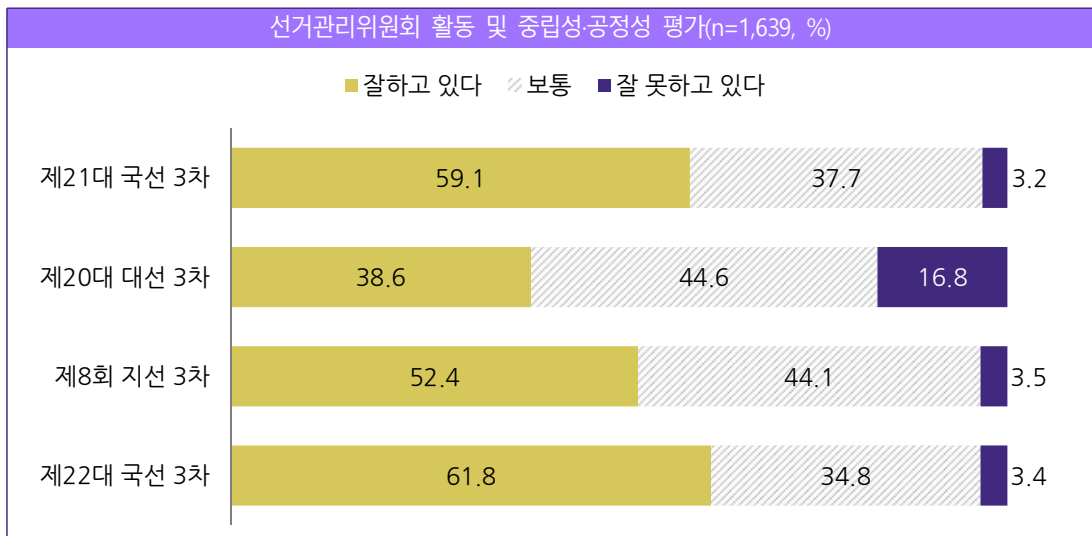


15.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평가가 61.8%로 제20대 대선 이후 상승 추세

→ 제21대 국선 대비 2.7%p 상승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 공정성 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8%(매우 잘하고 있다 : 3.5% + 잘하고 있는 편이다 : 58.3%)로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 대비 각각 23.2%p와 9.4%p 상승하였음



붙임

질문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원 ○○○입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3702-2100번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다”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조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응답 내용은 그 비밀이 보호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 17. 제주

- 지역 규모 : 1. 광역시(특별시 포함)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2024년 4 ~ 5월
 한국갤럽 조사 연구 소
 장 오 창
 담당 연구원 김 예 슬
 실사 연구원 이 경 현
 주 소 서울시 중로구
 전 화 사 직 로 7 0
 02-3702-2554

SQ1) 실례지만, ○○님은 몇 년생이십니까?

_____년 → 2006년생의 경우 월까지 작성,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 조사 가능

SQ2) 성 별 : 1. 남자 2. 여자

A.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문 1) ○○님께서서는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1. 많이 있었다
2. 조금 있었다
3. 별로 없었다
4. 전혀 없었다

문 2) ○○님께서서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가?

1. 투표했다 → **문 3)으로 갈 것**
2. 투표하지 않았다 → **문 2-1)로 갈 것**

[문 2) 2번 응답자만]

문 2-1)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기 1~6 Rotation

1.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2.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4.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
 5.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잘 몰라서
 6.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
 7. 기타(적을 것: _____)
- **문 2-1) 응답 후 문 10)으로 갈 것**

[문 2) 1번 응답자만]

문 3) 그러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가?

1. 사전투표(4월 5일 ~ 4월 6일) → **문 3-1)로 갈 것**
2. 선거일 투표(4월 10일) → **문 4)로 갈 것**
3. 기타(선상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 **문 5)로 갈 것**

[문 3) 1번 응답자만]

문 3-1) 사전투표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기 1~6 Rotation

1.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상 주소와 달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가 없어서
2. 선거일(4.10.)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3. 선거일(4.10.)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4.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5. 사전투표가 편리해서
6. 언론보도 또는 주변 권유
7. 기타(적을 것: _____)

[문 3) 1번 응답자만]

문 3-2) 만약 4월 5일 ~ 4월 6일 진행한 사전투표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님께서는 선거일인 4월 10일에 투표하실 수 있었습니까?

1. 투표할 수 있었다
2. 투표할 수 없었다

[문 3) 1번 응답자만]

문 3-3) 만약 ○님께서 사전투표가 아닌 선거일 투표를 하셨다면,

후보자 또는 정당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1. 후보자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2. 정당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3. 후보자와 정당 선택 모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4. 후보자와 정당 선택 모두 그대로일 것이다

[문 3) 1번 응답자만]

문 3-4) ○님께서는 지역구위원을 뽑기 위한 지지 후보자를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1. 사전투표 당일
2. 사전투표일 1~3일 전
3. 사전투표일 1주일 전
4. 사전투표일 2주일 전
5. 사전투표일 1달 전
6. 사전투표일 1달 이상 전

[문 3) 1번 응답자만]

문 3-5) ○○님께서서는 비례대표의원을 뽑기 위한 지지 정당을 언제 결정하셨습니다?

1. 사전투표 당일
 2. 사전투표일 1~3일 전
 3. 사전투표일 1주일 전
 4. 사전투표일 2주일 전
 5. 사전투표일 1달 전
 6. 사전투표일 1달 이상 전
- 문 3-5) 응답 후 문 5)로 갈 것

[문 3) 2번 응답자만]

문 4) ○○님께서서는 지역구위원을 뽑기 위한 지지 후보자를 언제 결정하셨습니다?

1. 투표 당일
2. 투표일 1~3일 전
3. 투표일 1주일 전
4. 투표일 2주일 전
5. 투표일 1달 전
6. 투표일 1달 이상 전

[문 3) 2번 응답자만]

문 4-1) ○○님께서서는 비례대표의원을 뽑기 위한 지지 정당을 언제 결정하셨습니다?

1. 투표 당일
2. 투표일 1~3일 전
3. 투표일 1주일 전
4. 투표일 2주일 전
5. 투표일 1달 전
6. 투표일 1달 이상 전

[문 2) 1번 응답자만]

문 5) ○○님께서서는 지역구위원을 뽑기 위한 지지 후보자 선택 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다?

* 보기 1~6 Rotation

1. 정책/공약
2. 소속 정당
3. 능력/경력
4. 도덕성
5.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
6. 주위의 평가
7. 기타(적을 것: _____)

[문 2) 1번 응답자만]

문 6) ○○님께서서는 비례대표의원을 뽑기 위한 지지 정당 선택 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다?

* 보기 1~5 Rotation

1. 정당의 이념
2. 정당의 정책/공약
3.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4.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5.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6. 기타(적을 것: _____)

[문 2) 1번 응답자만]

문 7) ○○님께서서는 지지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보기 1~12 Rotation

1.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
2. 후보자의 선거벽보
3. 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4.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
5. 후보자의 전화·문자메세지 선거운동
6.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7. 언론기사 및 보도
8. 밴드,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9.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
10.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11.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2.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
13. 기타(적을 것: _____)

[문 2) 1번 응답자만]

문 8) ○○님께서서는 지지 후보자나 정당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십니까?

1. 매우 충분했다
2. 충분했다
3. 부족했다
4. 매우 부족했다

다음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하여 ○○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면·동마다 정해진 수의 선거벽보를 첩부하였으며, 선거구 안의 매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였습니다.

[문 2) 1번 응답자만]

문 9)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9) 1번 응답자만]

문 9-1) 보신 적이 있는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문 9) 접촉 여부		[문 9) 1번 응답자만 문 9-1) 도움 정도			
	있다	없다	매우 도움됨	어느 정도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선거벽보	1	2	1	2	3	4
선거공보	1	2	1	2	3	4

문 10) ○○님께서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①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1	2	3	4	5
②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1	2	3	4	5
③ 내 한 표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B. 선거 분위기

문 11) ○○님께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깨끗했다 ↗ → **문 11-1)로 갈 것**
2. 다소 깨끗했다 ↓
3. 보통이었다 → **문 12)로 갈 것**
4. 다소 혼탁했다 ↘
5. 매우 혼탁했다 ↘ → **문 11-2)로 갈 것**

[문 11) 1번, 2번 응답자만]

문 11-1) ○○님께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보기 1~7 Rotation

1.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법 준수
2.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
3.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감시·단속 때문에
4. 검찰·경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단속 때문에
5.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 때문에
6. 언론의 공정한 보도 때문에
7.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준수되었기 때문에
8.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4번, 5번 응답자만]

문 11-2) ○○님께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지 못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보기 1~8 Rotation

1. 금품제공·수수 등 돈선거 때문에
2. 가짜뉴스 때문에
3.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4.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처리 때문에
5.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 및 예방·조사 활동 때문에
6.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7. 공무원의 선거 관여 때문에
8. 후보자 팬클럽, 산악회 등 사조직 개입 때문에
9. 기타(적을 것: _____)

문 1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님께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규율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몰랐다

문 13) ○○님께서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13-1)로 갈 것**
2. 없다 → **문 14)로 갈 것**

[문 13) 1번 응답자만]

문 13-1)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이 ○○님께서 지지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많이 미쳤다
2. 조금 미쳤다
3. 별로 미치지 않았다
4. 전혀 미치지 않았다

C. 선거 제도

문 14)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님께서 본 조사 이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있었다 → **문 14-1)로 갈 것**
2. 몰랐다 → **문 15)로 갈 것**

[문 14) 1번 응답자만]

문 14-1)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구체적인 의석 배분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몰랐다

다음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하여 ○○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최초 도입(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기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의 그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 15) ○○님께서서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기간인 4월 5일(금요일)과 4월 6일(토요일)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 조사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모르고 있었다

문 16) ○○님께서서는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17) ○○님께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 및 신뢰성 등 강화를 위하여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 대책(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 대신 바코드로 인쇄, 수검표 실시 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었다 → **문 17-1)로 갈 것**
2. 모르고 있었다 → **문 18)로 갈 것**

[문 17] 1번 응답자만

문 17-1) 공정성 및 신뢰성 등 강화 대책(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 대신 바코드로 인쇄, 수검표 실시 등)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에 도움 되었다
3.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모르겠다 / 무응답

문 18) ○○님께서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돕는 제도이다	1	2	3	4	5
②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돕는 제도이다	1	2	3	4	5
③ 사전투표를 할 경우 사전투표 후의 선거이슈(사퇴·단일화 등)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는 제도이다	1	2	3	4	5
④ 선거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제도이다	1	2	3	4	5

[문 18) ④의 4번, 5번 응답자만]

문 18-1) 사전투표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기 1~4 Rotation

1.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개인도장)을 인쇄날인하는 등 사전투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선거일 투표보다 4~5일 먼저 시작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고 후보자 검증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 사전투표 후 발생하는 후보자 사퇴, 단일화 등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4.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5. 기타 (이유:)

문 19) 향후 사전투표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사전투표제도를 확대(시간 또는 기간 연장 및 투표소 추가 설치 등)해야 한다
3. 사전투표제도를 축소(시간 또는 기간 단축 및 투표소 설치 축소 등)해야 한다
4. 사전투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문 19-1)로 갈 것**

[문 19) 4번 응답자만]

문 19-1) 사전투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보기 1~4 Rotation

1. 미리 신고한 사람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소지 구시·군 내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없이 허용하고,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3.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만 허용해야 한다
4. 군인, 경찰 등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투표만 운영해야 한다
5. 기타 (이유:)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20) ○○님께서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몰랐다

문 21) ○○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사전투표일(4월 5일, 6일)과 선거일(4월 10일) 모두 근무하셨습니까?

1. 예 → 문 21-1)로 갈 것
2. 아니오 ┘
3. 고용된 사람이 아님 ┘ → 문 22)로 갈 것

[문 21) 1번 응답자만]

문 21-1)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이번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였습니까?

1.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었다
2. 형식적으로 보장해주었다
3. 보장해주지 않았다

문 22) ○○님께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몰랐다

문 23) 현행법상 회사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D.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평가

▶ 선관위 홍보 활동 영상 및 사진 제시

문 24) ○○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문 24) 1번 응답자만]

문 24-1) 각 유형별로 보거나 들으신 경험이 있는 경우, 홍보활동이 실제 선거참여나 선거정보를 얻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유형	문 24) 접촉 여부		[문 24) 1번 응답자만] 문 24-1) 도움 정도			
	있다	없다	매우 도움됨	어느 정도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① (동영상 재생) TV 광고	1	2	1	2	3	4
② (오디오 재생) 라디오 광고	1	2	1	2	3	4
③ (이미지 제시) 신문 광고	1	2	1	2	3	4
④ (이미지 제시) 전광판/대중교통 등 시설물 광고	1	2	1	2	3	4
⑤ (이미지 제시) 팸플릿/포스터 등 인쇄물 홍보	1	2	1	2	3	4
⑥ (이미지 제시, 동영상 재생) 인터넷, SNS, 유튜브 홍보	1	2	1	2	3	4

[문 24) ⑥의 1번 응답자만]

문 24-2) ○○님께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가 있었다
2.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3. 보통이다
4. 별로 효과가 없었다
5. 전혀 효과가 없었다

▶ 선관위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이미지 제시

문 25)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캐치프레이즈를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님께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이번 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호감이 간다
2. 호감이 가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문 26) ○○님께서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 수행 공정성(투표·개표 관리 공정성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잘 못하고 있다

E. 인구통계학적 특성

D 1) 실례지만,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재학 / 졸업
3. 대학교 재학 / 졸업
4. 대학원 재학 이상

D 2) 현재 ○○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1. 경영/관리/전문/자유직
2. 사무관련직
3. 전문기술직
4. 자영업
5. 서비스/판매/영업직
6. 농/임/어업
7. 생산/단순노무직
8. 주부
9. 학생
10. 무직/기타

D 3) 실례지만, ○○님 닥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어느정도 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7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D 4) ○○님 닥의 현재 생활수준은 한국의 다른 가족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한국의 다른 가족에 비해 매우 낮음을, 10은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최저					중간					최고
0	1	2	3	4	5	6	7	8	9	10

D 5) ○○님께서서는 평소 지지하거나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